

경남간호

경상남도간호사회지 통권27호

권두시 | 동백꽃 | 이귀옥 **경남간호갤러리** | 서양화 | 이향연 **2021 간호계 동향** |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집회 일지 | 박형숙 **코로나 시대 현장의 소리** | 구가영·김한솔·정인아·정지에·정혜윤·팽화숙 **회원작품 맛보기** | 거창군간호사회·통영시간호사회·함안군간호사회·손지안·신화진 **또 다른 나의 삶** | 김지유·박정희 **제30회 학술발표회 논문초록** **경남간호 핫이슈** | “간호법이 필요해” 응원 포스터 제작·간호정책 특강 실시·간호역량개발 간호연구지원사업 **경남간호사회 이모저모**



경상남도간호사회
Gyeongnam-do Nurses Association

동백꽃

아무런 눈길 없어도
야무진 너의 가슴은
분명 명이 들었다

기다림에 짓눌려
피를 토하며
이대로 멈출까 정말 두렵다

아직도 차가운 봄바람에
마음을 여니
더욱 아름답구나

숨죽이며 모두가 부러워한다

그러나 무섭도록 푸르게
모두가 무성할 때
터지는 너의 가슴

조그만 흔들림에도 피를 튀기듯

밤새 흐른 눈물처럼 바닥에 깔려도
너의 아름다움 변함없이
내 마음 붉게 물들인다



이귀옥
창원여자고등학교 보건교사
시집 『출산에서 수능까지』

경남간호

경상남도간호사회지 통권27호





■ 표지이야기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참여
(2021. 11. 23.)

경남간호

경상남도간호사회지 통권27호

발행처/경남간호사회
 발행인/박형숙
 발행일/2021년 12월 31일
 편집장/신미란
 편집위원/김영란, 심봉희, 이숙희, 조상희, 하재현, 황진희
 주소/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63, 403(오피스프라자)
 경남간호 문의/055-262-6006
 홈페이지/http://www.gsndnurse.or.kr/
 비매품

제자 : 순원 윤영미(서예가)

- 대한민국전통미술대전 초대작가
- 대한민국 전연대상전 초대전(서울 백악미술관) 외 다수 전시
- 현) 순원서예원장

권두시 | 동백꽃 | 이귀옥

4 권두언 | 박형숙 |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

6 격려사 | 배정옥 | 증경회장

8 경남간호 갤러리 | 서양화 | 이향연

2021 간호계 동향

10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집회 일지 | 박형숙



- 여야 3당의 간호법(안) 발의
- 간호법 제정의 의지를 담은 활동과 공청회 개최
- 제1·2차 법안소위원회 간호법(안) 최초 상정과 심의
-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하다
- 제1차 결의대회 개최
-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기자회견 및 제2차 결의대회
-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집회 시작하다 (제1차-제13차)

코로나 시대 현장의 소리

- 20 오늘도 웃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 구가영
- 22 나의 간호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 김한솔
- 25 누군가의 친구인 우리는 마산의료원 간호사다 | 정인아
- 28 태어나서 가장 잘 선택한 '간호사' | 정지애
- 30 감염관리간호사라는 사명감으로... | 정혜윤
- 32 COVID-19와 함께한 1년 6개월 | 팽화숙

회원작품 맛보기

- 36 리스&견과바 | 거창군간호사회
- 37 목공예 | 통영시간호사회
- 38 가족공예 | 함안군간호사회
- 39 시 | 구름마을 | 손지안
- 40 수필 | 의로운 길을 걷는 그대들에게 보내는 찬사 | 신화진

또 다른 나의 삶

- 42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향하여 | 김지유
- 45 또 하나의 시작 | 박정희

49 제30회 학술발표회 논문초록

경남간호 '핫이슈'

- 56 경남간호사회 '간호법이 필요해' 응원 포스터 제작
- 57 간호정책 특강 실시 — '간호 관련 법·제도의 이해'
- 58 경남간호사회 간호역량개발 간호연구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경남간호사회 이모저모

- 60 2021년 분회 주요소식
- 63 2021년 분회 주요소식 | 창립순으로
진주시간호사회 · 거제시간호사회 · 통영시간호사회 · 하동군간호사회
김해시간호사회 · 양산시간호사회 · 거창군간호사회 · 남해군간호사회
합천군간호사회 · 밀양시간호사회 · 함안군간호사회
- 70 2022년도 경상남도 간호대학 현황
- 71 경남간호사회 임원, 분회 회장, 상임위원
- 72 편집자 레터

간호사는 죽어도 환자는 살린다



박형숙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

존경하는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임인년을 희망차게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이 등장하면서 3년째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고군분투 중인 간호사를 향한 정부와 국민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건만, 서서히 지쳐 쓰러져가는 선·후배, 동료들의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괴로운 현실입니다.

「경남간호」통권27호 발간에 즈음하여, 경남 회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46만 간호사들이 '간호사'로서의 정당하고 보람찬 삶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다짐과 간절함을 담기 위하여 그간의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권두언>을 시작합니다.

'간호사는 죽어도 환자는 살린다!!!'

간호사의 이러한 사명감이 여실히 증명된 것이 코로나19 사태이다. 코로나19로 가족과 격리되어 무서움과 불안에 떠는 노인환자의 심신안정을 위해 방호복 D레벨을 입고 여유롭게 노인환자와 고스톱을 치는 장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간호사들은 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비오듯 흐르는 땀으로 온갖 피부질환이 생기고 손이 불어터지더라도 엄청난 희생과 봉사정신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 을지병원 신규간호사와 부산진보건소 간호사의 극단적인 선택... 이러한 간호사들의 희생을 왜 선배간호사나 동료 간의 갈등과 왕따로 몰고 가는가? 간호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동료 간의 괴롭힘 때문이 아니라 간호사를 숙련된 전문인력으로 대우하지 않는 낙후된 보건의료 시스템, 간호사 부족에 기인한 업무 과다로 인한 체력고갈, 낮은 임금체계 및 열악한 근무여건 등등 때문이다.

- 중 략 -

2년 전 2020년 2월, 매서운 서울의 칼바람을 맞으면서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저를 포함하여 남정자 제1부회장님, 이종임 병원간호사회 회장님, 양은주 사무처장님 등과 대한간호협회 소

속 간호사들이 1인 시위를 할 당시, 공인회계사들도 공인회계사법 제정을 위해 우리와 나란히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들은 2021년 7월에 공인회계사법이 제정되는 날을 맞이하였다. 그런데 아직도 제정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일선 간호사는 간호법이 없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참 간호의 정신 하나를 생각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중무휴 365일 병상의 환자 곁을 지켜왔다.

2005년, 2019년 4월 5일, 2021년 3월 25일 3차례에 걸쳐 간호법 발의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하였다. 그러나 작년은 앞서 2번의 발의와는 달랐다. 간호법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이래 8월 24일 공청회를 거쳐 11월 24일 간호역사 100년만에 최초로(의료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소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이 심의되었다. 속기록을 통해서 볼 때 간호법안은 직역 간 갈등이 심한 법안이므로 정국회 회기 안에 여야 양당 간사의 합의 하에 일정을 정해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보류되었다.

위의 글은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슴 졸이며 기다린 간호법안에 대한 심의결과는 그동안 쏟아부었던 경남 회원 15,000여 명과 전국의 46만 회원들의 노력, 열정, 염원 및 행동 등 그에 비해 너무도 허망하기 짝이 없는 허탈함과 큰 실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대감과 희망을 안고 내려오는 열차 안에서 저의 속마음을 여과 없이 표현한 글의 일부입니다.

작년 11월 23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간호사 그리고 간호대학생과 자원봉사자들은 눈과 매서운 바람 속에서 여야 3당이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정책협약에 대한 이행 촉구, 불법진료와 불법의료기관 퇴출 및 간호법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중단 등을 외치며, 제20대 대통령선거(3월 9일)를 3일 앞둔 지금까지 매주 수요집회와 매일 1인 시위, 릴레이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위험한 의료현장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사생결단의 절규와 노력을 펴붓고 있습니다. 서울의 12월 1월 2월의 겨울날씨는 정말로 무서울 만큼 차갑고 사나워 하늘에서 붉은 눈발이 흩날리면서 쏟아질 때도 대한간호협회 손혜숙 이사님의 선창을 따라 '제정해 주십시오' 간호법을 목청껏 외쳤습니다.

그 결과 2월 10일 목요일 다시 한번 소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기회를 맞이하였으나,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하듯이 우리와 맞대응을 벌이고 있는 두 단체와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라는 심의 방향으로 가닥이 전개되어, 결국은 대신이 끝나고 새 정부 하에서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수요집회가 열릴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간 우리들의 집약된 노력, 수고, 고뇌 및 한숨들에 대한 가치는 영원히 살아 국민들과 회원의 가슴속 깊이 숨쉬고 있겠지요.

새정부와 3당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간호사는 죽어도 환자는 살린다!!!'가 아닌 이제 우리 간호사도 살고 환자도 살리는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남간호」 통권27호 발간을 위해 소중한 귀한 작품들을 보내주신 작가님과 회원님 그리고 편집을 위해 애써 주신 신미란 홍보위원장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오미크론 확산 등 여러 어려운 여건으로 발간이 다소 지연되어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사랑과 간호정신



배 정 옥
제8~9대 중경회장

‘코로나19’로 인해 극한 체험과 같은 상황을 굳건히 헤쳐 나가고 있는 임상간호사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 사업장, 학교 등 분야별 근무지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문간호사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긴장의 연속인 열악한 의료 환경과 간호인력 부족으로 중노동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마스크를 통해 접할 때마다 사랑하는 후배들의 고난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음을 가슴이 미어집니다.

세상이 급변하여 우리는 AI(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신기술로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하여 많은 직업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아무리 발전된 신기술들이 사람을 대신한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대신할 수 없는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서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직일 것입니다.

수많은 질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약해졌을 때 환자들을 정성 어린 손길로 보듬고 보살피 줄 인간의 따뜻한 정과 고운 심성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결코 개발되거나 창조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정이 메달라 갈수록 더 필요로 하는 분야가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몸담아 수행하고 있는 간호 분야입니다. 희생과 봉사 정신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예사رو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간호직은 천직이라는 말을 합니다. 간호사는 간호 지식과 기술에 앞서 간호정신이 더 중요한 만큼 타인에 대한 아낌없는 배려와 섬김, 나눔과 봉사, 박애와 성실 등 사명과 책임의 깃발을 앞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세계 나이팅게일의 후예인 백의의 천사들은 수관식(授冠式)

“인정이 메탈라 갈수록 더 필요로 하는 분야가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몸담아 수행하고 있는 간호 분야입니다. 희생과 봉사 정신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예사로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간호직은 천직이라는 말을 합니다. 간호사는 간호 지식과 기술에 앞서 간호 정신이 더 중요한 만큼 타인에 대한 아낌없는 배려와 섬김, 나눔과 봉사, 박애와 성실 등 사명과 책임의 깃발을 앞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서두르지 않고 쉬지도 않으며 밤낮으로 엄숙한 생명사랑으로 약속 지켜 달려왔습니다. 그들 모두가 그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어둠을 가르며 임상을 지키고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하면서 생명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그리고 묵묵히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빛나는 간호 역사를 써 온 분들이고 앞으로도 만고에 더 크게 빛나는 역사를 써 내려갈 주인공들입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후배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승을 위해서 두 손 모아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면서 기도하는 선배들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인류 역사와 함께 발맞춰서 신의 인간 사랑을 대신하는 여러분의 숭고한 행위는 밤하늘의 새벽처럼 영롱하게 빛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간호사 후배 여러분,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존경과 사랑을 한아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Golden Pot-2 /130.3x97.0cm Mixed media on canvas 2020

●작가노트

‘The Coloring of Images’ (심상의 색채)

수많은 삶의 경험과 이야기, 다양한 감정과 행위들을 시사하는 색조들이 생성과 중첩, 소멸을 반복하여 캔버스 위에 쌓이고 유동하듯 나타난다. 그것은 내적 신호들이 보내는 에너지의 흐름에 색채를 통해 화폭에 옮기는 일종의 놀이행위이기도 하다. 이런 작업은 자유로움 속으로 나를 이끌며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심상들을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표출하게 해 준다. 이런 작업을 통해 삶 속에 쌓인 긴장과 중압감이 해소되고 신선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작업의 흐름은 느낌, 직감, 열정에 따라 진행하면서 붓을 터치할 때마다 모든 감각과 감성을 담아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작업 과정에서 표현대상에 대한 본질적인 심상의 색채를 그려내는데 세심함과 신중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Mental image-2 /90.9x72.7cm Mixed media on canvas 2021



Golden pot-6 /60.6x60.6cm Mixed media on canvas 2020



이향연 신라대학교 미술학과,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졸업 | 개인전 및 초대전 28회, 단체전 100여회 | 2018 싱가포르포터블아트페어, 2017 뉴욕어퍼더블아트페어답텐 중 4위 선정, 2017 ART MORA OPENCALL EXHIBITION 등 해외전 다수 | 2021 tvN 드라마 <하이클래스>, 2020 MBC 아침드라마 <나쁜사랑>, 2019 KBS가요무대 작품협찬, 2017 tvN 방송작품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 등 다수 작품협찬 | 2016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상품 <회화 스카프> 선정작가 | 현재 한국미술협회, 부산미술협회, 홍익M아트회원 | KT광진지사, 금보성아트센터,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동원과학기술대학, GL갤러리 등 작품 소장처 다수

2021 간호계 동향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집회 일지

박형숙 /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



지난해 2021년 3월부터 2022년 올해 3월 현재까지 간호법 제정을 위해 2차례의 결의대회와 13차례의 수요집회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사투를 벌였던 팩트체크 차원에서 그간의 클린정치, 공청회, 결의대회, 청와대 청원, 1차에서 13차까지 개최한 수요집회와 주요 퍼포먼스의 내용 그리고 참여하여 함께 뜻을 모은 회원들의 이름을 포함하여 간호법 제정을 향한 항해일지를 간략하게 기록하고자 한다. 여기서 항해일지라고 비유함은, 캄캄한 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망망대해에서 살려달라고 구조신호를 보내고 절규를 하여도 아무도 응해주지 않고 그냥, 이 추운 날씨에 생고생 하네 정도로 외면받은 심정도 적고 있다.

* * *

여야 3당의 간호법(안) 발의

2003년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대부분 발의된 법안들은 임기 만료되어 폐기되었고, 2019년 4월 5일 김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과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도 안타깝게 임기 만료되어 폐기되었다. 그동안 곳곳이 노력한 결과로 다시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에서 간호법안이 발의되었다[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외 49명 발의(간호법(안)),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 보건복지위원 외 33명 발의(간호법(안)), 국민의당 최연숙 국회 보건복지위원 외 33명 발의(간호조산법(안))]. 현재 전체 의료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는 의료인 중 유일하게 의료기관 개설 권한이없이 24시간 환자 곁을 지키는 근로자이며, 저출산·고령으로 인한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로 지역사회통합돌봄 등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업무의 범위와 체계 정립을 위한 법률로써 간호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전쟁 당시 1951년 9월 '국민의료령'으로 제정되어 78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의 의지를 담은 활동과 공청회 개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정책교육 및 클린정치 홍보를 위해서 박형숙 회장이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20여 회에 걸쳐 간호대학 및 의료기관, 지역사회를 돌며 보건소,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간호정책교육 특강 및 설명회를 가졌다. 아울러 '법은 시대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주제로 경남신문에 칼럼을 기고하였고, '간



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를 주제로 경남신문에 전면광고를 실었으며, 간호법 제정 응원 챌린지 사진 모음의 포스터를 제작하여 경남도 내 16개 간호대학과 병원에 배부하였다.

드디어 8월 24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게 되었다. 이 공청회 자리는 2020년 연말에 이어 2021년 5월 1일 노동자의 날을 기점으로 7월 31일까지 3개월간 경남 회원 1,600여 명이 창원시 성산구 지역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신 강기윤 의원님께 보낸 클린정치의 결과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전체 경남 회원의 십분의 일이 동참한 열의와 간절한 바람의 표출을 강 의원님께서 수렴해주신 결과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공청회에 참석한 5분의 진술인은 간호법안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 시대의 필연적 요구이며, 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제1·2차 법안소위원회 간호법(안) 최초 상정과 심의

2021년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법안소위원회에 70년 만에 역사적으로 간호법이 상정되어 심의되었으나, 직역 간의 갈등이 심한 법안이므로 추후 심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여야 양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사가 협의하여 재심의하기로 하며 안타깝게도 보류되었다. 끈질긴 9차의 수요집회 합성의 결과로써 2월10일, 제20대 대통령 대선을 앞두고 제2차 법안소위원회가 간신히 다시 개최되어 의원님들이 간호법 안을 단독 심의하였다. 보건복지부의 간호법 해외사례 분석 결과 보고, 진술인(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홍옥녀 간호조무사협회장)의 의견 발표, 법조문 내용상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상정된 간호법안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요양보호사 삭제 등 법안 조문을 수정하는 것에 공감하며 의원들은 보건복지부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단체와의 이견을 조정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더 심도있게 진행하라고 주문하며 심의 결과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염원이 의원님들에게 닿지 않았다. 전달 방법이 허술한 까닭인지 하늘이 무심한 건지 심히 우울하고 무기력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하다

2022년 임인년 새해 벽두인 1월 3일 월요일,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OECD 국가 중 아시아 유일하게 간호법이 없는 나라에서, 간호사를 꿈꾸는 대한민국 간호대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한 지 6일이 지나 토, 일요일이 되면서 경남 회원들이 총출동하여 월요일 10일 아침에 드디어 20만이 넘게 되었다. 청원한 지 일주일 만에 이루어낸 쾌거였다. 딸 아들 남편 시댁가족 이모 고모 조카 제자 지인 등등 회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청와대 청원에 동참하라고 몇시간씩 열을 올리다보니 어깨, 팔, 손가락이 우리하게 아파왔다. 그 결과 2월 2일 청원 마감일까지 총 247,385명이 참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3월 2일,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은 국민청원 답변에서 “국회의 관련 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제1차 결의대회 개최 | 2021. 11. 23. 화.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제1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2021년 11월 23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맞은편 산업은행 앞에서 개최하였다. 결의대회 현장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전국 지부 총 499명이 참여하였으며, 그중 경남간호사회는 박형숙 회장 외 총47명이 참여하여 뜻을 같이 하였고, 결의대회 행사장에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4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의 결연한 의지와 뜨거운 목소리가 국회로 전달됐다. 이어 묵념을 통해 부산시 동구보건소

에서 코로나19 업무를 담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한나 간호사를 비롯해 간호현장에서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한 간호사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야 3당은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정책협약을 지켜라!”

“의사협회는 간호사가 독자 진료행위를 할 것이라는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

“초고령사회에서 안전한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을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라!”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기자회견 및 제2차 결의대회 | 12. 1.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와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기자회견과 제2차 결의대회를 2021년 12월 1일 국회 앞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된 간호법 제정안의 12월 중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국의 110명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이 참여하였는데 경남간호사회는 총 33명 중 김해시 회장 권영채 교수와 박홍주 김해대 교수, 이상화·이성화·조미림 회원 등이 참여하였으며 젊은 회원 7명은 방호복을 착용하고 기자회견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료단체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집회 시작하다

제1차~제13차, 국회의사당 정문·금산빌딩·현대캐피탈빌딩 앞

▪ 제1차 수요집회 | 2021. 12. 8.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제1차 수요집회’를 오전 10시 예행연습을 거쳐 11시 개최하여 간호법 제정안을 연내에 반드시 심의·의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수요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맞은편 집회장소(현대캐피탈빌딩·금산빌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등 총 5곳에서 동시에 열렸고, 국민의당 최연숙 국회의원의 지지연설이 있었다. 이날 성명서 낭독, 피켓시위 및 구호제창 등이 있었고, 이후 결의문을 배포하였다.

▪ 제2차 수요집회 | 12. 15.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제2차 수요집회를 국회 앞에서 중앙회 임원, 지부 및 산하단체 회장, 사무처장, 현장 간호사 등 1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참여자들은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하라 △불법진료 주범 의사부족 해결하라 △법정간호인력 위반 병원 퇴출하라 등 3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시작하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서영석 국회의원은 지지발언을 통해 간호법의 필요성을 밝혔으며,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실어주는 연설로 고조된 집회 분위기는 타투 풍물패가 이어받아 전국 4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의 염원을 신명나는 사물놀이 한마당으로 풀어냈다.

▪ 제3차 수요집회 | 12. 22.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제3차 수요집회에서는 특히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를 컨셉으로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앞에서 대한간호협회가 2차례 걸쳐 진행한 현장사진 공모전을 통해 출품된 우수작 전시회도 함께 마련됐다.

사진전을 통해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을 부여 받았지만 간호사는 77년 전 일제 잔재인 조선의료령에 뿌리를 둔 낡은 의료법의 한계 속에 갇혀 있다”면서 “간호사를 코로나와 맞서 싸운 영웅들이라 칭찬하지만 세계 96개국에 있는 간호법이 대한민국에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간호사가 안전해야 국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며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이제는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피켓시위 및 결의문을 배포하였다.

▪ 제4차 수요집회 | 12. 29.

전국의 간호대학생 대표들과 임시국회 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제4차 수요집회를 여야 3당을 향해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강요하는 간호현실을 개선하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기운 국민의힘 의원이 격려 방문하여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 담당하는 간호사의 간절함이 담긴 법”이라면서 “여러분의 뜻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한다. 간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강조했다. 이날 남정자 제1부회장이 동참하였다.

▪ 제5차 수요집회 | 2022. 1. 5.

임인년 새해 들어 1월 5일 전국에서 모인 16개 시·도 간호대학생 대표들은 전날(4일) 간호법 제정 추진을 위한 비상대책본부 출범식을 가진 데 이어 매주 열리고 있는 제5차 수요집회에 참석하여 국회를 향해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으며,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간호법이 오는 11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간호사 국가시험 거부와 동맹휴학 등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종임 감사, 가야대학교 서금숙 교수와 김해대학교와 마산대학교 간호대학생 4명이 동참하였다. 이날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지지발언이 있었고, 집회에 참여한 간호사, 간호대학생들은 수요집회 후 시민들에게 대국민 성명서를 배포하였다.

▪ 제6차 수요집회 | 1. 12.

제6차 수요집회에서 박준용 간호법 제정 추진 비상대책본부장(부산 동주대 학생)은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선 간호대학생의(국시 거부) 치기와 반기를 내치지 않고 간호법 20만 명 청원 달성을 함께 해주셨다”며 국시거부와 동맹휴학 발언을 철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제자를 사랑하는 전국 간호대학교수 모임을 대표해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이건정 교수의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가 이어졌으며, 신경림 협회장은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한 소식을 알렸다. 이날 집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조정대 직능본부장, 제20대 윤종필 의원이 격려 방문하여 지지발언이 이어졌다.

▪ 제7차 수요집회 | 1. 19.

제7차 수요집회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간호대학생들이 참여해 70년 된 일제의 잔재, 낡은 의료법을 폐기하고 대통령 선거 전에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퍼포먼스와 함께 진행되었다.

현재 의료법은 1944년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위해 만든 ‘조선의료령’이 그 시작이며, 일제는 간호란 독립적 법적 체계를 붕괴시키고 조선의료령을 만들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직군 전부를 하나의 법으로 묶어 놓았다. 전국 시·도 간호사회 대표로 발언에 나선 서울시간호사회 박인숙 회장과 전국간호대학생 간호법 비상대책본부 정책국 정다움 학생(고신대)은 반드시 대선 전에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하였다.

▪ 제8차 수요집회 | 1. 26.

제8차 수요집회에서 국회는 대선 전에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였다. 전국간호대학생 비상대책본부 김건우 학생(부산 신라대),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국회의원의 지지발언에 이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대국민 성명서를 배포하였다. 성명숙 제2부회장, 김희자 이사, 조상희 이사, 하영미 이사가 동참하였으며, 대국민 호소문을 박형숙 회장이 힘차게 낭독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께서 직역 간 갈등을 내세워 언제까지 정부안을 갖고 오라는 주문만 할 거냐고 질타하여 큰 울림을 주었다.

▪ 제9차 수요집회 | 2. 9.

전국에서 200여 명의 간호사, 간호대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에 이어 수요집회까지 잇따라 개최하며 국회 압박에 나섰다. 또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보건 의료 단체의 가짜뉴스에 엄중 경고하였다. 시·도 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강원도간호사회 장희정 회장의 대국민 성명서 낭독에 이어, 보건 의료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뜻을 같이 했고, 전국간호대학생 간호법 제정 추진 비상대책본부장 박준용 학생(부산 동주대)의 지지발언이 있었다. 이날 경남에서는 손계순 감사, 하주영 위원이 동참하였다.

▪ 제10차 수요집회 | 2. 16.

2월 16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제10차 수요집회’에서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간호대학생 등 200여 명은 한 목소리로 “의사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악법 프레임을 당장 거두라”고 요구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수요집회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힘을 보태고 있었다. 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지역 16개 병원노조에서 지부장들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보건 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소속 전체 병원 노조지부를 대표해 나선 중앙대 의료원 지부장인 이지윤 간호사의 연대사에 이어, 상계 백병원 지부장 이혜련

간호사, 서울성모병원 지부장 김선화 간호사의 발언이 이어졌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는 소속 병원노조로부터 모은 연대기금을 간호협회에 전달하고 간호법 제정을 위해 힘내 달라며 응원하였다. 시도 간호사회를 대표하여 충청남도간호사회 임미립 회장이 대국민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 제11차 수요집회 | 2. 23.

전국에서 모여든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200여 명은 영하의 칼바람 속에서 개최한 제11차 수요 집회에 참여해 국회를 향하여 “여야 3당 대선후보가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간호협회 광월희 제1부회장은 대국민 대국회 호소문을 통해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치료보다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의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도 간호사회 대표로 나선 대구시간호사회 최석진 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숙련된 간호사 배치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알게 됐다”며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간호대학생 대표로 나선 전국간호대학생 비상대책본부장 박준용 학생(부산 동주대)은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보다 나은 간호를 제공하길 원하고 있고 편협한 정치논리를 떠나 그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유능한 의원이 있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제12차 수요집회 | 3. 2.

2022년 3월 2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제12차 수요 집회를 통해 전 국민적인 간호법 제정 요구를 강조한 뒤 “국민 모두가 찬성한 간호법, 국회는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하였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여론조사 결과와 소비자 시민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에서 의사 등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대형보드를 통해 공개됐다. 설문조사 결과 각각 국민 70.2%, 의사 등 보건의료인 76.1%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했다. 특히 국회 조사결과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는 9.3%에 불과했다. 미래소비자행동 조사에서도 의사 등 보건의료인 가운데 10.3%만이 반대했다. 대선 1주일 전 이어서 긴장감이 감돈 상태라 외치는 구호에 대선전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는 구호는 하지 않았다.

▪ 제13차 수요집회 | 3. 16.

서울 여의도에서는 제13차 수요집회가 여전히 열렸겠지만, 나는 이갑옥 전 창원시분회장, 양은주 사무처장과 함께 창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강기운 의원을 면담하였다. 여당 간사가 된 강기운 의원은 지난번 보다는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 * *

2021년 11월 23일 이후 5개월에 걸쳐 진행된 결의대회와 수요집회는 음력 설 휴일이었던 2월 2일과 제20대 대선일인 3월 9일 두 차례의 수요일만 제외하고 현재 13차까지 그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아마 5월까지의 수요집회는 계속될 것이다. 처음 200여 명이 넘게 참여한 회원들이 회를 거듭할수록 참여 회원수와 열기들이 사그라들고 점점 지쳐가고 있는 중인데도, 강원도간호사회 회장 출신 손혜숙 이사님은 타고난 성대 덕분에 수요집회를 시작하면 2시간씩 '제정해 주십시오. 간호법'을 선창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청이 고장나지 않았다. 신경림 협회장님의 그 神氣에 가까운 철인 정신은 가냘픈 체력을 커버하고 46만 회원들을 독려하셨지만, 응급실 신세를 두어번 지신 것 같았다.

나, 박형숙 경남 회장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정문으로 10시까지 도착하려면 새벽 서너 시부터 밤잠을 설치 6시 KTX 열차에 올라타면 골아 떨어지기 마련이었다. 마지막 종착역이 서울역이니 망정이지, 거의 내리지 못할 경우도 더러 있었다. 서울 오르내리기를 1주일에 3일은 보통이고 심하게는 5일도 왔다갔다하는 통에 광명역 지나면 아예 객실을 지나 통로쪽으로 짐보따리를 들고 나온다. 서울역 도착이라는 멘트와 더불어 육중한 열차 문이 열리면 용수철 튀듯이 제일 먼저 내려, 서부역 택시 승강장 쪽으로 짹짹 날다시피 뛰어가서 택시를 3분 내로 타게 된다. 창원역에서 출발한 양은주 처장이 나보다 몇 십 분 먼저 도착하여 택시 타기 위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다.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하의로 중학생용 검은색 팬티스타킹을 신고 그 위에 내복 입고 양말 한 켤레 더 신고 기모가 있는 바지 입고, 상의는 소매 없는 런닝, 두꺼운 내의, 스웨터, 양복, 그 위에 허리를 덮는 패딩 점퍼, 양 주머니에 손난로 2개 넣고 -협회에서 제공하는- 간호법 제정 문구가 등판에 적혀 있는 연두색 큼직한 티셔츠를 입으면 집회용 복장이 완성된다. 열차 안에서 두 개의 열나는 패치를 등 뒤에 붙인다. 피켓을 올렸다 내렸다 2시간 가까이 몸부림치고 나면 발이 시러웠고 6차 집회 때부터 오른발 뒷 부분이 얼어버려서 정말 힘들었다. 피가 생겨 KTX 특실 안에 비치된 신문지 3종류를 갖고 내려 두껍게 땅바닥에 깔고, 운동화 신은 발등 위에 손난로를 각각 올리고 구호를 외치니 좀 나아졌다. 그렇게 집회를 마치고 밤늦게 집에 도착하면 이번에는 팔과 어깨가 옥션옥



찢거렸다. 겨울 내내.

눈이 하얗게 내리는 수요일도 있었고, 하늘이 우중충한 수요일도 있었다. 비교적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여의도 정문 쪽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으나 날씨는 매우 추웠다. 집회 후 국회 건물에서 점심 식사하러 나오는 의원님, 보좌관님 그리고 많은 직원, 국민은행과 금산빌딩 근처의 직장인들에게 전단지들을 돌렸으나, 대부분 손사래를 치거나 눈을 돌려 아예 외면하고 지나갔다. 읽어 보지 않더라도 일단 받아서 휴지통에 처박아 넣더라도 받아야 가야지... 야속하기까지 하였다. ‘아, 이런 거구나’ ‘나는 잘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전단지들을 돌리는 사람들의 심경을 이해하게 되었다. 훌륭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지만 보통사람은 모든 것을 체험해야만 알다니... 어리석은 바가 보통이 넘는다. 참, 전단지들을 1시간 가량 돌리고, 가볍게 17개 시도 간호사회별로 점심을 먹고 어김없이 2시부터 시도 간호사회 당해 의원실을 방문하여 의원님, 보좌관님, 비서관님을 만나 또 열심히 간호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부탁하러 다닌다.

여태까지 한번도 빠지지않고 참여한 회원은 광주간호사회 김숙정 회장님 그리고 박형숙과 양은주 회원, 김영경 부회장님, 손혜숙 이사님, 신경림 협회장님 등. 아니 내가 왜 혼자 남의 출석을 부르는지 모르겠다.

혹자는 비판? 비난? 무지하게 말한다. 간호협회는 무슨 돈이 많아서 그리고 어떤 아지매들을 돈 주고 데려와서 집회를 하는지? 조용히 병원에서 근무나 할 것이지, 이런다고 누가 눈이나 깜짝 할 거로 아냐? 결단코 우리들은 모두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고, 17개 시도 간호사회 회비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너무도 간호법이 절실하며,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세계 96개 국에 있는 간호법이 GNP 3만5천 불이 넘는 경제 선진국 한국에 지금이라도 간호법이 제정되어, 의료강국을 향한 발걸음을 대한간호협회가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작금 새 정부는 대선전 공약에서 밝혔듯이 적극 지지하기 바란다.



코로나 시대 현장의 소리

코로나 시대 현장의 소리 1

오늘도 웃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구가영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사

4월에 선별진료소로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한 지도 벌써 5개월이 되었다.

처음 선별진료소에서 일할 때와 달리 창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선별진료소의 일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처음에는 검체 채취, 호흡기 외래, 이비인후과 외래 전 환자분들의 코로나 유사증상을 감별하고 외래를 안내하거나 검사를 하고 다시 예약을 잡아주는 것이





많았는데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고, 백신을 맞게 되면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 환자, 안심병원 환자 및 보호자의 입원 전 검사 및 원내 출입 안내, 신속항원검사 등 새로운 업무들을 맡게 되었다. 원래 하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들이라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부장님, 외래 팀장님, 여러 수선생님들, 감염관리실 선생님들, 의료정보파트 선생님, 진료 행정팀 선생님, 원무 선생님 등 많은 분들이 함께 도와주셔서 선별진료소 운영을 하고 있다.

창원 대형마트 사건을 기점으로 이전에 비하여 많은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선별진료소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대규모 검사를 위한 동선 정리, 선별진료소 시설보강, 행정업무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개선하면서 지금은 이전에 비해 안정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면서 점점 우리병원의 선별진료소가 발전되고 있구나를 느끼고 있다.

코로나 검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온다. '왜 이리 늦냐, 내가 먼저 왔는데 왜 저 사람이 먼저냐' 등 날카로운 말들로 마음을 힘들고 지치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더운데 고생한다', '힘내라'고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지치고 힘들 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가끔 교회, 기업, 일반 시민분들이 구호물품을 보내주시는 데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호물품을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 될 때까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선별진료소에서 근무를 하며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셔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열심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다.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으신 전국의 의료진 여러분 모두모두 파이팅입니다!

나의 간호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김한솔 / 삼성창원병원 간호사

“응급구역 확진자 발생으로 접촉자 8명 전원 입원합니다. 지금 코호트 병실로 입실하니 침상준비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각 23시 50분. 여기는 코호트 격리 병동, 밤 근무 출근하자마자 생긴 일이다. 근무 간호사는 4명, 이 늦은 밤에 감염관리실도 다시 출근, 응급실, 병동 수 선생님과 파트장님들도 다시 나오셨다. 자고 있던 환자, 보호자들을 깨워서 상황 설명하고 병실을 옮기고 다시 병상을 세팅하고….

응급실 내원했던 환자 중 코로나19 양성 발생으로 같은 공간에 있던 환자 중 2명은 자가 격리자로 분류되어 각각 1인실로 입실, 나머지 환자 중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능동 감시자로 분류되어 1인실로 모두 입실하였다. 코로나19, 판데믹, 코호트 병동, 음압격리 등 이제는 익숙한 용어들이다.

6명 환자 전동 후 병실 정리를 하고 돌아보니 이미 입원환자 8명이 입실해 있었다. 다들 급히 입원 하느라 입원 물품도, 보호자도 없다. 보호자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니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급한 처치만 하고 입원해 여기저기 호소도 많다. 각각 다른 과에 다른 진단명에… 머리가 어질 어질했다. 보호구 4종을 입고 뛰어다녔더니 속옷은 땀으로 젖어 마를 새도 없고, 빨라진 맥박은 떨어 지질 않았다. 네 명의 간호사들은 대화도 없이 숨소리만 내며 각자의 일을 처내기에 바빴다. 일이 마무리가 되고 정신이 든다 싶었더니 어느새 아침번이 출근해 있었다.



코호트 병동 입출구와 임시 스테이션

마스크가 피부같이 된 지 1년하고도 4개월. 집 앞 슈퍼도, 탁 트인 공원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어린 아기들도 마스크를 쓰고 있다. 눈만 내어 놓고는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아마 마음은 모두가 울고 있겠지. 복직할 때 '선생님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망설임 없이 코호트 격리 병동에 왔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간호를 하고 있음이 10년 간의 간호사 생활 중 가장 힘들지만 뜻깊은 시간이 아닐까 한다.



육아휴직이 끝나갈 무렵 2020년 9월 초, 복직 1주일을 남기고 전화가 왔다. 이번에 코호트 격리 병동을 만들게 되었는데, 1인실 병상이 많은 소아과 병동에 만들게 되었고 내과 환자가 대부분이라 경력자가 필요하다 하셨다. 잠깐만 도와줄 수 있겠냐고, 코로나가 끝나면 없어질 병동이라고 하셨다. '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에 알겠다고 했지만, 품 안에는 걸음마를 막 댄 딸아이가 안겨 있었다. 선택권이 없었지만, 선택해도 되나 싶었다.

시간이 흘러 8개월이 지나고,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없어질 병동이라 나는 '뜨내기다'라고 말했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내 집이 되어 버렸다. 한창 더웠던 9월에 복직하여 보호구로 '더워, 더워!'를 외치다 '보호구를 입어도 추워!' 하다 다시 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레벨-D를 입지 않음이 다행이지만, 이 환기할 수 없는 병동과 갑갑한 보호구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격리구역내 정수기 철회로 인해 근무시간 내도록 물을 못 마시는 건 물론이요, 배뇨·배변도, 식사도 못 할 때가 많다. 물론 일반병동에 근무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코호트 병동은 본원의 입원 가능한 과가 다 있는 데다, 재원기간 1-3일의 급성기 환자들이 많아 호소도, 시술·검사도 너무 많다. 게다가 컨디션 저하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도 많아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입은 보호구를 퇴근할 때까지 갈아입지 못하고 땀에 젖은 채로 9시간 넘게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임시 간호사실이 병실과 조금 떨어진 곳에 있다 보니 급하다고 호출벨이 오면 100미터 달리기도 하고, 그러다보면 마스크 때문에 숨이 턱 끝까지 차 올라온다. 자가 격리자가 있어 페이스 실드를 착용



9시간 내도록 라텍스 장갑을 끼고 일한 간호사 손

하다 보면 이마에 피부 질환도 일으킨다. 몇몇의 간호사들은 라텍스 장갑의 알러지로 피부 질환을 일으키기도 했다. 다행히 병원에서 라텍스 프리 장갑을 제공하여 요새는 조금 낫다. 하지만 손에 땀이 마르지를 않으니 여전히 나았다 덜 했다가 반복 중이다.

코호트 격리는 일차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이어야 하고, 첫 번째 기준으로 기침, 콧물, 가래,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흉부 X-ray 상 폐렴 소견이 있으면 1인실로 선제 격리를 하고 이외 발열이 있는 경우 다인실로 격리를 하게 된다. 폐렴 증상이 있을 시 24시간 간격 2회 이상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이어야 격리 해제가 가능하고, 이외 증상자는 매일 감염내과 전문의가 격리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격리 해제시 일반병동으로 전동을 보낸다. 두 번째로는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유행지역을 다녀왔거나 거주 중일 경우 우선 격리를 시행한다. 증상이 없어도 2주간 격리 지침이라 많이들 힘들어한다.

입실 이후 보호자의 출입도 통제가 되는데, 이때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 ‘나는 무슨 죄냐’라며 입원 수속 시 설명하고, 입원 시 병동에서 설명을 해도 수궁을 할 수 없나 보다. 더 이상 간혀있을 수 없다며 90세 노모 환자를 혼자 두고 퇴실해 버린 보호자 아들의 뒷모습이 어찌나 밍던지.

마스크가 피부같이 된 지 1년하고도 4개월, 집 앞 슈퍼도 탁 트인 공원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어린 아기들도 마스크를 쓰고 있다. 눈만 내어 놓고는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아마 마음은 모두가 울고 있겠지.

복직할 때 ‘선생님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망설임 없이 코호트 격리 병동에 왔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간호를 하고 있음이 10년 간의 간호사 생활 중 가장 힘들지만 뜻깊은 시간이 아닐까 한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의사·간호사 등 많은 의료진이 ‘도움’을 주러 갔던 것처럼, 다 함께 힘을 모은다면 머지않아 “우리가 드디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이겼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이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나는 오늘도 내게 맡겨진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을 내어 본다.

누군가의 친구인 우리는 마산의료원 간호사다

정인아 / 마산의료원 간호사

2020년 2월 23일 '코로나 지역 확산 대비 마산의료원 병상확보 관련 명령' 공문이 중수본에서 경상남도를 거쳐 본원으로 전담병원 지정관련 공문이 왔다.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경남도에 하나뿐인 의료원으로서,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다. 그것은 누구나 두려워하던 코로나 확진자들을 위한 안식처를 만들어주는 일이었다.

병원에서는 바로 비상회의가 소집되었고, 비상사태의 모든 중심은 간호부와 감염관리실이었다. 먼저 입원 중인 환자를 케어하던 간호사들은 환자들에게 하나하나 양해를 구하고 수술한 환자들은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다른 병원을 알아보거나 다음을 기약하며 주어진 단 며칠 안에 200여 명을 퇴원시켜야만 했고(만약 간호사라면 1명을 퇴원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알 것이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그 상황을 전달받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싶지만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서둘러 해야 되는 일이라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먼저 환자에게 설명하고 보호자에게 전화기를 들었다. 첫 번째 보호자 연락부터 만만치 않았고, 현재 당신의 부모님의 불편감이 우선이라 전화를 시도한 간호사들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의 대응도 순전히 간호사들의 몫이었다.

전담병원 시작 즈음에는 코로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감염관리실에, 보건소에, 도청에 이리저리 연락하고 실제 업무보다 더 많은 궁금증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만 했다. 간호부에서는 수간호사들을 중심으로



코로나센터를 만들어 주·야간으로 부족한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부서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하기 위해, 좀 더 많은 환자들이 입원하고 퇴원하는데 원활한 업무를 하기 위해 교대근무를 자처하며 야간에 오는 환자들도 마다하지 않고 전담병원으로서의 자리를 잡아갔다.

SARS, MERS 이후 처음 듣는 COVID-19, 다른 바이러스처럼 이도 곧 잠잠해 질 거라 생각을 하면서 “곧 끝날 거니 조금만 참자”라는 말로 간호사들을 다독이며 코로나와의 싸움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곧 잠잠해 질 거란 생각은 모두의 오산이었다. 음압병동 8병실을 시작으로 입원한 코로나 환자들이 일반병상 250개를 다 차지하는 데는 얼마 걸리지도 않았다. 집에 가지도 못하고 아이들을 돌보지도 못하고 모든 걸 뒤로하고 코로나와 싸우던 간호사들의 수고에도 아랑곳 않고 코로나 환자들의 수는 물결처럼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공휴일이나 휴일이 겹칠 때면 코로나 환자들은 더 증가하였다. 그럴 때마다 병원은 코로나전담병원 지정, 코로나전담병원 부분해제를 반복하며 일반 환자와 코로나 환자들을 받기 위해 병실을 끊임없이 소독하고, 비우고, 다시 채우기를 반복, 지금까지 18차례나 병동 소개와 지정을 반복하였다. 그리고는 연일 보도되는 확진자수 증가와 연일 경신되는 숫자들, 경남 모두가 혼란에 빠졌고, 대한민국이, 그리곤 전 세계가 팬데믹 혼란에 빠졌다.

물론 간호사와 같이 환자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환자들은 처음에는 거제, 창원을 시작으로 부산, 하동, 양산, 진주, 김해, 전라도 광주 등 지역도 다양했으며 치료를 받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끌려왔다, 가뒀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입원 시 요구사항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한 욕설과 창문으로 뛰어 내릴거다, ‘죽어 버릴거다’라는 협박을 하기도 하고, ‘치킨 시켜달라’, ‘자장면 배달 해달라’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하기도 하였으며, 간호사를 잡아당겨 보호복이 찢어지기도 하는 등 우리 간호사들은 오롯이 그들의 분노를 안아야만 했다.

그 중 요양원발 치매환자들이 대거 입원했을 때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치매환자들을 간호하다 보니, 보호복을 입고 하루에 기저귀를 수십 번 갈아야 하기도 했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대비해 침상 난간을 올려주고, 끊임없는 요구를 들어주며 매일 무탈하기를 기도해야만 했던 순간도 있었다.

그래도 우리는 간호사니까 맡은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게, 다른 근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감염되지 않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아무 곳에 가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해가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러던 중 코로나 유행으로 연일 보도되는 뉴스에 지역주민들의 관심은 증대하여 전담병원에 쏟아지는 많은 편지와 지원 품들은 우리를 보듬었고, 위축되어 있던 마음을 녹여주었으며, 그 따뜻함을 환자와 같이 나누면서 환자들의 분노도 작은 간식 한 봉지로 녹곤 했다.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입게 되는 보호복은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와 같다. 그래서 직원은 단 1명도 빠짐없이 착·탈의 교육을 받고, 실제로 입어보기를 수십 차례 반복하여 지금은 거울을 보지 않고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용품이 감염예방을 위해 1회용으로 바뀌면서 Level C, D 같은 보호복 뿐만 아니라 페이스 쉴드, 마스크, 글러브 등 감염물품들이 부족하였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보호복을 아끼기 위해 3교대 근무만 해오던 우리는 한동안 4교대 근무를 하기도 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페이스 쉴드에 이름을 적어 소독 후 개별관리하기도 하였고, Level D 대신 1회용 원가운을 입기도 하였다.

1년을 넘게 이어오는 코로나 확산은 잠시 주춤하는 듯 하였으나 곧 교회, 사우나, 헬스장, 유흥업소 등으로 퍼져나갔고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은 한계에 다다라 생활치료센터까지 확장하면서 코로나와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제 지칠대로 지친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불만을 표출하는 환자에서부터 외국인 불법체류자까지 끝도 없이 지속되고 있었다. 처음엔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 이슬람인에게 돼지고기가 제공되기도 하였고, 과일과 빵만 달리는 외국인들, 자국음식이 아니면 안먹겠다고 임의 단식을 하는 외국인들 그리고 양과 작업하다 붙잡혀왔다는 할머니, 굴 까다가 코로나 걸렸다는 어르신들, 치매 어머니 돌보겠다고 같이 입원한 아들, 1달도 안된 쌍둥이들을 데리고 입원한 엄마, 아기 둘을 병원에서 맞이하게 되어 하트 종이를 선물한 간호사까지, 너무 많은 사연과 너무 많은 이벤트로 때로는 눈물 나기도 하고 때로는 웃음 짓기도 하였다.

그렇게 해가 바뀌고 2020년 1월에 시작된 코로나와의 싸움은 끝날 듯 말 듯 2021년 7월을 지나고 있다. 두 번의 봄이 지나가고, 다시 여름이 다가오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예방접종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은 코로나와 싸울 힘을 주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 언제 마스크를 벗게 될지, 언제 웃으면서 차 한잔을 여유롭게 마실 수 있을지 우리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있기에 환자들이 일상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함을 넘어 자랑스럽기까지 한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우리는 간호사다.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친구인 우리는 마산의료원 간호사다.

태어나서 가장 잘 선택한 ‘간호사’

정지애 /보건소 간호사

WHO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되고 벌써 만 2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저는 창원시청 소속의 보건소 직원이며 진료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였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원인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했고, 곧 이어 12월 우리나라 서울의 한 모녀가 폐렴에 감염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2020년 2월 대구광역시 종교단체 신천지 사건으로 대구는 코로나19의 집단 발생의 최초의 피해도시가 되었고, 그때 저는 곧 ‘팬데믹이 선언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이어 3월 11일 팬데믹이 선언되었고 보건소에서는 선언되기 앞서 이미 2월 말에 비상 회의를 통해 전 인력이 코로나 업무에 배치되어 일하게 될 것을 알리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 받았다.



저의 첫 번째 할 일은 기존 진료 환자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화번호를 확보한 후 진료를 하지 않게 되었으니 가까운 병·의원으로 갈 것을 권고하였고, 문자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하루에도 여러분이 찾아와 항의하고 전화로 왜 진료를 하지 않느냐며 언쟁을 하는 일을 몇 달간 반복하였다.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욕도 먹고 스트레스가 쌓여갔지만, 저의 일하기에 성의를 다하여 하루하루를 견뎌 나갔다.

다음은 보건소 입구에 앉아서 출입하는 민원인의 발열 체크와 내소 용무를 확인하고 안내하는 일을 하였다. 겨울이어서 춥기도 하였고 어르신들은 전화가 없어 하나하나 도와드리려야 하고 이런 걸 왜 해야 하냐고 따지시는 민원인들도 많았지만 도와드리며 얼른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가끔은 선별진료소에 검체 채취와 학교나 어린이집 검체 채

저는 포지션이 없었습니다. 어디든 가라고 하면 묵묵히 일을 해내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어디로 몇 번을 옮겨야 할지 모르는 현실에 놓여 있지만, 제가 태어나 선택한 일 중 가장 잘했다고 자부하는 것이 간호사가 된 것이기에 현장에서 발 빠르게 뛰고 있는 저의 모습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취를 위해 행정요원으로 가기도 하였고, 창원에서 드라이브스루에 파견을 보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저는 한겨울에 드라이브스루 파견도 가게 되어 레벨D를 입고 들어오는 차량 안의 사람들 검체를 채취하는 일도 하였다. 너무도 추웠지만, 이겨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열심히 하였다.

코로나 예방접종이 시작되자 이상반응으로 민원 접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저는 이상반응팀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쌓여가는 서류들과 민원인들의 하소연은 끝이 없었고 삼일 밤낮을 새워도 일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제일 힘들었던 일로 기억이 된다.

계속하여 확진자가 늘면서 질병청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을 접종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저는 예방접종실에 투입되어 불법체류자들의 관리번호 발급과 예방접종 예약을 도와드리고, 위탁병원에서 걸려오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질병청에 질의를 통해 해결해 주는 등, 그 외에도 국외에서 접종을 하고 귀국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국외접종 등록을 하여, COOV앱 연동을 통해 접종내역 인증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였다. 뿐만아니라 3차 접종이 시작되었고 예약 문의로 걸려오는 전화 민원을 상담하고 예약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저는 가족의 확진으로 확진자가 되었다. 자가격리가 끝날 무렵 상사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역학조사로 발령이 났다고. 저는 포지션이 없었다. 어디든 가라고 하면 가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묵묵히 일을 해내는 사람이어야 했다. 지금은 기초역학에서 하루에 많게는 70건 이상을 하고 있고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어디로 몇 번을 옮겨야 할지 모르는 현실에 놓여 있지만, 제가 태어나 선택한 일 중 가장 잘했다고 자부하는 것이 간호사가 된 것이기에 지금 이런 재난에 보탬이 되는 1인이 되어 현장에서 발 빠르게 뛰고 있는 저의 모습이 무척 자랑스럽다.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듯이 언젠가 코로나도 끝이 날 것이라 믿고 간호사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할 것이다.

감염관리간호사라는 사명감으로...

정혜윤 / 경희대학교 교육협력 중앙병원 수간호사

2020년 1월 초만 하더라도 우한폐렴이라는 단어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유행성감염병일 거라는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날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었다. 이 글을 앞서 전국의 병원 내 의료진 및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소 직원, 선별진료소 근무하는 모든 요원 등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다.

저는 2017년부터 감염관리실로 발령을 받아 감염관리전담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우리 병원은 지역사회 거점병원으로 지정이 되어있어, 유행성 감염병 대응훈련을 통하여 어떤 유행성 감염병이 와도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2020년 1월 국내 전파가 처음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선별진료소라는 개념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한폐렴이라는 지침만을 들고 본관 출입구 앞 책상과 체온계 하나 만에 의존하여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감염관리실 멤버들과 함께 선별을 시행하였다. 열이 있고, 호흡기 유증상 환자는 응급실 옆에 있는 음압격리실에서 응급실 의료진들과 함께 진료를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감염관리실은 24시간동안 대기조로 근무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단시간 전국적 전파로 인한 1차 대유행을 겪게 되면서, 유행성 감염병 대응팀을 구성하였고, 수많은 회의를 통해 그동안 대응훈련으로만 하였던 음압텐트를 가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구성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보기위해 방문하던 어느 날, 부산시 확진자와 접촉한 분께서 가벼운 감기증상으로 내원을 하였고, 진료 후 시행한 보건소 PCR검사에서 양성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고는 덜컥 겁이 났다. 당시 김해시에서는 확진자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터라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보시는 의



료진께서 Level D 대신 비닐가운을 입고 진료를 봤었고, 이로 인하여 자체 회의를 통하여 2주 자가격리를 시행하였다. 이후 선별진료소에서 진행되는 진료는 화상진료로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본원에서도 PCR 검체채취를 시행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었고, 이렇게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텐트로 되어 있는 선별진료소는 선선한 5월임에도 불구하고 내부는 40도를 육박하였고, Level D 보호복 내부에서는 흐르는 땀에 샤워를 하기 일쑤였다. 이후 선별진료소로 사용하던 텐트는 컨테이너로 변하였고, 이렇게 2차 대유행까지 지나가던 12월 어느 날, 감염관리실로 보건소 역학조사팀이 전화가 걸려왔다.

“병원에 확진자가 진료를 받고 갔습니다. 역학조사를 진행하려하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1년 동안 노력했던 것이 물거품으로 되는 건 아닌지 앞이 막막하였다. 역학조사팀이 방문하여 CCTV를 같이 돌려보는 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원내 대응 지침대로 잘 수행하였기에 이후에도 몇 번의 확진자가 다녀가고, 역학조사를 받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큰 상황 없이 지금까지 지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저런 상황을 끝내놓고 늦은 밤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하면 5살 난 아이가 이야기한다. “엄마가 좋은데, 맨날 자고 일어나면 옆에 없고, 맨날 늦게 오고” 그러면 저는 아이를 꼭 안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 아들, 코로나가 없어지면 유치원 가자, 맨날 엄마가 유치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할께, 약속해.”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나로 인하여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까지 문제가 생길까봐 제대로 유치원 한 번 못간지 어언 1년... 아이는 친구도 못 만나고 얼마나 갑갑했는지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지만, 병원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감염관리간호사라는 사명감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라는 말을 건네고 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에너지를 얻으며 오늘도 웃으며 열심히 선별진료를 한다.



텐트로 되어있는 선별진료소는 선선한 5월임에도 불구하고 내부는 40도를 육박하였고, Level D 보호복 내부에서는 흐르는 땀에 샤워를 하기 일쑤였다. 이후 선별진료소로 사용하던 텐트는 컨테이너로 변하였다. 감염관리간호사라는 사명감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라는 말을 건네고 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에너지를 얻으며 오늘도 웃으며 열심히 선별진료를 한다.

COVID-19와 함께한 1년 6개월

팽화숙 /SMG연세병원 간호사

#전쟁의 서막을 알리다

2020년 2월경에는 인근 병원 직원의 확진자 발생과 대구 신천지 관련 확진자의 증가로 감염관리실의 업무는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본원은 350병상 규모 종합병원으로, 감염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감염관리간호사가 수행한다. 확산되는 COVID-19로 인해 보건소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지침과 공문이 보내오고 감염관리간호사 1명이 COVID-19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었다. 예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업무에, 병원은 부족한 인프라, 시스템과 시설을 갖추어야 했기에 하루에도 몇 번씩 회의를 거치면서 본원의 형편에 맞게 대처해야만 했다.

●출입문 통제

내원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확진자 원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출입문을 통제해야 했다(출입문 수가 5곳이다 보니, 출입구 개방문제 회의로 하루를 보냈던 것 같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휴일에도 조를 편성하여 현재까지도 당직을 하고 있다.

●맨땅에 천막을 치다.

환자 분류소, 성인, 소아선별진료소, 보호자 대기실을 만들어 공간 구분을 해야 했고, 급한대로 천막을 치는 방법밖에 없었다. 응급실 앞에 3개의 천막이 쳐졌고, 풍경은 거의 난민촌 수준이었다. 야외이고 2월이라 바람이 송송 들어오고, 난로가 있었지만 손·발은 시리고 엄청 추웠다.

●근무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선별진료 근무를 신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수간호사를 포함한 기존의 인력으로 근무 조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 레벨D를 입고 오전·오후 당직제로 의사, 간호사가 선별진료를 담당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건소도 민간병원에서 음압텐트를 설치하여 PCR 검체 채취를 하도록 했다. 업무량은 더욱 늘어났다. 음압텐트에 들어가서 진료와 검체채취를 하고 나면 온몸이 땀 범벅이었고, 보호안경 앞에는 서리가 끼여 앞이 제대로 분간이 되지 않았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환자수가 증가하면서, 모두 COVID-19를 원망하고 우리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 외부 호흡기 전담진료소 운영

또, 지침이 바뀌고 우리는 새로운 운영 방법을 모색해야만 하는 시기에, 정부의 지원으로 컨테이너(에어컨 포함)를 지원받아 호흡기 전담 외래진료소와 입원실을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음압텐트가 철거되고 워킹 쓰루가 설치되었다. 간혹 선별진료를 받은 환자가 확진되면 동선 파악, 직원들의 감염 노출 주의 등에 최선을 다했고, 다행히도 병원 내 감염과는 연결되지 않았다.

음압텐트에 들어가서 진료와 검체채취를 하고 나면 온몸이 땀범벅이었고, 보호안경 앞에는 서리가 끼여 앞이 제대로 분간이 되지 않았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환자수가 증가하면서, 모두 COVID-19를 원망하고 우리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위기1, 감염간호사가 사직하다

8월 어느날 감염간호사가 감염에 대한 엄청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사직을 하게 되었다. 감염병 환자의 증가와 업무 부담감으로 감염관리를 지원하는 간호사는 없었고, 경력자를 설득하고 채용 공지를 올려도 다들 고개만 흔들 뿐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감염관리 간호사가 오고 다시 업무가 시작되었다.

#위기2, 병동 간호사가 확진되다

12월 퇴근 시간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우리 모두를 멘붕에 빠뜨렸다. 병동 간호사가 확진이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남의 일인 줄 알았더니 바로 나의 일이 되었다.

어찌지? 어떻게 해야 하지? 입원환자 관리는? 접촉자는? 외부에 소문나면? 등등. 순간 머리가 하얗게졌다. 이제껏 우리가 힘들게 해왔던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었나? 감염간호사는 보건소와 계속 의논하고, 우리는 그래도 평정심을 찾고 직원, 입원환자 분류를 하여 전수검사를 진행하였다. 한 시간이라도 빨리 결과를 보기 위해 명단을 파악하고 검체채취 시간과 방법, 이송, 신고 방법 등이 혼란과 혼동 속에서 진행되었다.



모든 포커스는 전담병원, 대형병원 위주로 집중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같은 중소병원에서 지역사회 주민을 지키기 위해, 전염병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소임을 완수하고자 묵묵히 일하는 간호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기예, 힘들지만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

행정 직원은 검체를 실시간으로 진주 보건환경원에 이송하였다. 가다가 명단 누락자와 샘플이 맞지 않아 돌아오기도 하고, 보건원에 연락이 안되어 막연히 기다리기도 하고, 간호사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밤을 새워 이 엄청난 일들을 해결하고 있었지만, 역학조사관이 점검과 조사를 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오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위기3, 병동을 지켜야 한다

입원환자를 24시간 봐야 하는 상황. 자가격리자를 제외하고 근무할 수 있는 간호사는 고작 4명 뿐인데 출퇴근이 안되어 2주 동안 병동에서 숙식을 하며 환자를 볼 수밖에 없었다. 보호자 면회금지, 다른 직원들의 이동제한, 4종 보호구 착용 후 업무, 3일마다 PCR검사 등 근무 간호사들의 스트레스는 상상 그 이상이었다.

하지만 우리 간호사들은 이 위기를 잘 넘기고 버티어 주었다. 우리 모두 병원을 지키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밤샘을 하고, 마음 졸이며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모른다. 생각보다 보호자나 환자의 민원은 없었고, 오히려 우리를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병동 내 추가 확진자 발생도 없고, 직원들의 자가격리도 끝나서 정상 근무가 시작되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직원들은 병원과 환자를 지키는 사람은 역시 간호사라고 하면서 밤새워 일하는 간호사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한다고 하였다. 벌써 반년도 지난 이야기다.

#위기를 통해 우리는 더 발전한다

그때는 전쟁이었다. 당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하여 다들 힘들고 지쳤지만, 누구 하나 못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확진 판정받은 간호사를 위로하고, 그 간호사는 본인 때문에 힘들어하는 다른 간호사들에게 미안함의 눈물을 흘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었다. 가끔씩 어느 병원에 확진자 발생이 있다고 방송



에서 접하게 되면, 그 병원의 간호사들이 겪어내야 할 엄청난 일들이 남의 일 같지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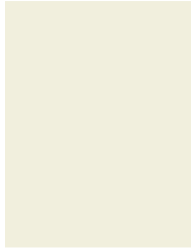
겪일 것만 같던 COVID-19는 변이바이러스까지 기승을 부리고, 2021년 7월 확진자가 1일 1,300명이 넘고 수도권은 4단계 거리두기 중이다. 새로운 감염간호사 역시 버티지 못하고 얼마 전 또 사직을 했고, 그래도 현재는 2명의 감염간호사가 업무를 수행 중이다.

우리 간호사들은 지금은 선별 진료뿐 아니라 백신접종까지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중소병원에서, 감염업무를 하는 간호사들의 부담은 만만치 않다. COVID-19로부터 병원과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해야 할 일들이지만, 누가 해야 하는가? 답은, 결국 우리 간호사다.

모든 포커스는 전담병원, 대형병원 위주로 집중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같은 중소병원에서 지역 사회 주민을 지키기 위해, 전염병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소임을 완수하고자 묵묵히 일하는 간호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기예, 힘들지만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

우리는 간호사다. 화이팅!!!



간호역량개발사업
거창군간호사회
〈플라워 리스와 견과바〉





간호역량개발사업
통영시간호사회

〈목공예트레이〉





간호역량개발사업
함안군간호사회

〈핸드폰 가방〉



구름마을

넓은 하늘에 구름마을 흘러간다
기둥도 없고 지붕도 없고 못 하나 박지 않은
회백색의 크고 작은 집들

깊어진 것 없는 등 가벼운 사람들 살기에
연기처럼 자유롭게 푸른 하늘 여권 없이
국경을 넘나들고
가끔 바람의 검문에 산봉우리 걸터앉아
멋진 포즈 취하면
새들도 날아와 집값을 물어본다

남부럽지 않은 구름 빌딩 빗물재산 채워지면
꿈꾸는 대지 위에 흥정도 하지 않고
아낌없이 다 주더라
등기가 필요 없는 구름마을에 살고 싶어라



손지안
경남 밀양 출생.
2016년 <서정시학>으로 등단.
요양병원 근무.

의로운 길을 걷는 그대들에게 보내는 찬사

신화진 / 거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포구 안 쪽빛바다에 가득 담긴 신선한 햇살 속에 자동차가 해안가 언덕 위의 도로를 달리는 장면, 영화 속 장면이 아니라 일상의 출근길이랍니다. 휴양지 여행길 같은 출근 풍경은 동서남북 어딜 가나 아름다운 해안으로 유명한 거제도에 사는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재직하고 있는 대학이 장승포와 지세포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어 주변 환경이 가장 아름다운 대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제도에는 외도나 가조도, 이수도, 해금강처럼 유명한 섬들도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보석같은 섬들도 많습니다. 드러나 있든 외진 곳에 있든, 이들은 한결같이 청정 거제를 구성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지속하게 하는 귀중한 인프라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 속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전국의 의료계 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바로 이런 섬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맙게도 요즘 언론 등에서 이러한 점을 부각시켜주는 공익광고가 들립니다만, 이미 나이팅게일선서로 시작한 간호사로서의 헌신과 봉사의 길은 마치 공기와 물처럼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공헌하고 있습니다.

간호학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인만큼 4년 동안 배우고 익혀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병원에서 임상현장실습의 과정을 밟아야 하고 이외에도 전문간호인에게 요구되는 지식, 스킬 및 능력들을 효과적으로 학습하여 전문 간호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는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실무능력이 갖추어진 전문간호인이 되기 위해서 당연히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임에도 이를 묵묵히 잘 따라주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참으로 가상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내·외부적으로 강조되는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치료적 돌봄 관계를 통한 간호대상자의 안녕 촉진을 위하여 인성과 감성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따라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간호사로서의 희생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인성과 감성을 갖추고 임상현장에서 실무에 능한 전문간호인으로 나이팅게일의 선서를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자 이전에 선배 간호사로서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고질병처럼 수많은 유희간호인력의 인적자원 낭비는 건강한 의료생태계 지속에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희간호인력의 발생은 쉽지 않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임상현장에 나가보니 구조적으로 간호사로서 감당해야 할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한계치를 넘어 스스로 길을 포기하는 burn out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건강한 여성으로서 결혼과 육아라는 개인 삶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지금 환경 속의 간호사의 길은 이를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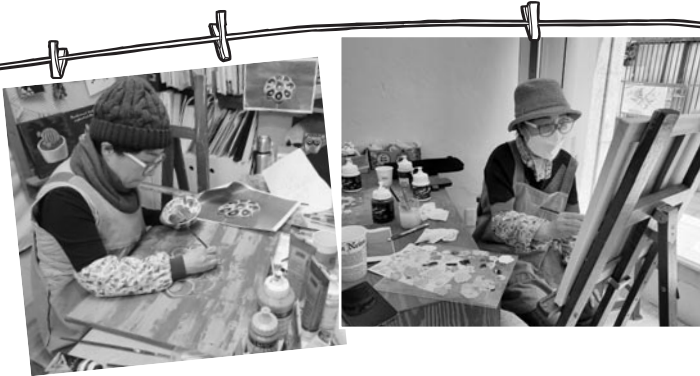
간호인적자원의 누수를 더 많은 댐을 건설해서 감당하는 것보다는 관련 단체나 분야에서 법과 제도, 임상환경 속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감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로서의 교육자 역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생들에게 간호사로서의 희생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인성과 감성을 갖추고 임상현장에서 실무에 능한 전문간호인으로 나이팅게일의 선서를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자 이전에 선배 간호사로서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도 수많은 풍파 속에 갈고 닦여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길 기원합니다.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향하여

김지유 / 전)삼성창원병원 간호사

신이 나에게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을 묻는다면, 자신 있게 '35년간 간호사로 정년퇴직한 것'이라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도전을 꿈꾸는 삶에 자신감과 용기를 주는 '나의 카렌시아'입니다.



가로수길 낙엽이 수북하게 쌓인 계절입니다. 고개 들어보니 은행나무가 마지막 한 잎마저 떨쳐버리고 빈 가지만 남았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얼마나 홀가분하고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63세 간호사 김지유입니다. 2015년 6월 30일 성균관대학 삼성창원병원에서 35년간 임무 완수하고 정년퇴직했습니다. 지금은 진해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임기제 공무원으로 3년 6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하는 선배를 보며 '쉬면 되지 왜 고민하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그게 나의 이야기가 되었을 때, 마찬가지로였습니다. 퇴직 몇 년을 앞두고 퇴직 후 삶에 대한 불안감으로 애태웠습니다.

'어느 순간이 내가 가장 행복한가?'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때부터 창동예술촌 문화거리에 있는 화실, 도자기, 캘리그래피 등 작가의 공방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문 열린 화실 앞에 섰습니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그림 배울 수 있나요?"

"물론이죠. 더 나이 많은 분도 있어요."

기뻐했습니다. 나의 취미를 찾았다는 대견함과 마치 화가가 될 것 같은 설렘이 생생합니다.



지금 또 다른 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의 막막함을 창동예술촌에 문을 두드리면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행복한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의 삶과 그림이 주는 공감에 빠져듭니다. 얼떨결에 내가 만들어낸 색깔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룰 때 희열이 와닿습니다.

취미는 영원한 친구입니다. 정년퇴직 이후 그림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슴에 핀 열정의 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잔잔한 그리움도, 쓸쓸한 마음도 달래고 싶었습니다. 그림이 그런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10년 정도 창동예술촌 거리를 오가며 마치 화가인 듯 살아갑니다. 어설프게 2인 콜라보 전시회도 열었고 성산미술대전 캘리그래피 입선도 했지요. 아, 실력이 아니라 용기더군요. 새로운 세상으로 향한 경험의 문 열어젖힐 수 있는 용기면 충분합니다.

퇴직을 앞둔 후배에게 앞서 살아본 퇴직 후 경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퇴직은 오랜 임상에서 구겨 둔 살아보고 싶었던 '진짜 나'를 찾는 보너스입니다. 처음에는 소속감도 동료도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고, 일할 수 없다는 단절이 안타까웠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단순한 논리로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퇴직 4일 만에 요양병원으로 취업하고 말았습니다. 급성기 병원과 너무 다른 환경이었지요. 빠른 적응을 위해 요양병원 심사청구 공부를 자처하며 치열하게 싸움을 했습니다. 그렇게 요양병원에서 적응하는 동안, 현재도 과거도 놓아버린 치매 어르신을 돌보며 안타까웠고 부모님의 삶이 생각났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현장에서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이 많을 때, Well Dying 교육을 접했습니다. 1년 동안 유언장도 작성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잘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다’ 말에 매료되었고, 버킷리스트로 ‘공부하자!’ 결심했습니다. 아, 결심을 실천으로... 창신대학교 대학원 호스피스 석사과정을 대견하게 마쳤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대학 캠퍼스는 가슴 설레고 매 순간 행복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실습하면서 임종 환자를 만났고, 그들의 공통된 후회를 알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미루고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한 강한 후회’였습니다.

또 다른 도전으로 '나이를 극복해보자.' 용기가 생겼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대통령이 발표하면서 창원시에서 치매안심센터 직원을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까지 자소서를 적고 면접에 나갔습니다. 35년 정년퇴직, 부모 치매, 요양병원 경험은 나이를 어찌할 수 없었나 봅니다. 덜컥 합격하고 보니 성취감과 자신감은 환상이었습니다. 딸 또래가 동료였고 새로운 사업이라 임상경험을 녹여 낼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행정적 처리가 빠르게 요구되는 일이기에 나이가 주는 시선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일보다 사람 마음만큼은 어디나 통하는가 봅니다. 점차 치매 가족을 돕고자 하는 진정성, 나이와 노하우 경험이 장점이 되어 치매 어르신과 가족 상담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직장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조이는 갑옷을 벗고 싶었지만 끝까지 지켰습니다. 돌아보니, 하루하루 벗지 못했던 옷은 어느새 편한 옷이 되어있습니다. 무거운 짐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 든든하고 따뜻해졌습니다. 신이 나에게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을 묻는다면, 자신있게 '35년간 간호사로 정년퇴직한 것'이라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도전을 꿈꾸는 삶에 자신감과 용기를 주는 '나의 카렌시아'입니다.

지금 또 다른 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든든한 취미 친구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정년퇴직의 막막함을 창동예술촌에 문을 두드리면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행복한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의 삶과 그림이 주는 공감에 빠져듭니다. 얼떨결에 내가 만들어낸 색깔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룰 때

희열이 와닿습니다.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색깔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소소한 행복도 늘어납니다. 10년간의 졸작이 집에도 직장에도 걸렸습니다.

'선생님, 저도 가방에 해바라기 크게 그려주세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부끄럽지만 거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로수 길. 빈 가지 은행나무의 쓸쓸함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는 찬바람에 웅골차게 몸집 키워다시 태어날 봄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대로 인정합니다.

지금에 발을 뺀고 행복하려 합니다. 훗날 '강한 후회' 하지 않도록...

늘 '진짜 마음'을 찾아갑니다.

또 하나의 시작

박정희 /마산대학교 명예교수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꾼다. 그러나 현실적인 삶은 고통이 더 많은 듯하다. 그런데 그 원인은 밖으로 향한 삶 때문이라고 한다. 행복을 찾아서 내면으로의 여행이 필요한 것이다. 아침에 커피 한잔을 마시며 조용한 서재에 앉아서 나를 찾는 여행을 시작한다.

들어가며

“이제는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퇴임식을 하고 학교를 나오며 맨 처음 든 생각이다. 그때의 감정은 시원함도 아쉬움도 아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처음 며칠은 아침 정해진 시간대로 움직이며 잠시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스치다가 머릿속 회로가 학과건물 입구에서 끝나면서 현실로 되돌아왔다. 그렇지. 출근할 연구실이 없구나. 그렇게 며칠 혼란스럽다가 이제는 다른 길이 놓여있음으로 그 길로 들어서 걷기 시작했다.

먼저 할 일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다. 원래도 계획 세우기를 즐겨 하였지만, 내게 주어진 온전히 자유로운 24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수적이라 싶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제 다른 길로 들어섰으니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내용으로, 어떤 속도로 누구와 함께 걸어갈 것인지 점검이 필요한 것이었다.

방향 설정하기/ 책을 만나고

대학을 졸업하고 병원과 학교에서 간호사로서 나의 삶은 항상 생명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삶과 죽음의 현장을 지켜보며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이었다. 내 집, 내 방안에는 읽고 싶은 책들이 많이 꽂혀있다. 시간이 나면 읽으려고 모아둔 책들이 요즘 내가 만나는 책들인데, 이 안에서 동서양의 여러 현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도덕경, 논어, 성경, 아함경 등 불교의 서적들과 고요한 소리의 문고들, 그리고 현대 영성가들의 책이 나의 책장에 늘 있어 곁에 두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노트에 적으며 어떻게 내 삶에서



이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해 왔다. 그렇게 1년여 동안 40여 권을 읽었다. 이 책들 가운데는 반복해서 읽을 때 더 깊은 이해가 되는 책들도 많았다.

삶의 스승들을 만나기/ 사람을 만나고

내가 세운 계획 가운데 하나는 한 달에 한 분씩, 자신이 알고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오롯하게 살아 온 어른들을 찾아뵙는 것이었다. 그분들을 만나 그 삶의 한 면을 잠깐이라도 맛보고 살아오신 여정을 보고 들으며 배우기 위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지식인의 특성 중 하나는 머리로 살아가려는 것, 그래서 말과 행동,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찾아뵈운 어른들은 정말로 자신들의 스승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치열했다. 부처님 말씀에 따라 팔정도를 걸어가는 스님, 스승이신 예수님의 길을 끊임없이 여쭙어보며 매일을 사시는 목사님, 대자연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만나시는 신부님, 노자의 무위자연에 따라 온전히 맡기고 사시는 선생님, 공자의 새로운 해석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을 찾으시는 어른, 그리고 바이런 케이터의 네 가지 질문으로 탐구하면서 오직 사실만을 보고자 하는 어른 등. 70대, 80대, 90대의 존경하는 어르신들을 뵈며 내게 주어진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다시 생각해보는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살아오신 분들의 공통점은 맑고 밝고 힘이 있었다. 특히 맑은 눈의 깊은 판단력을 가지며 모든 이들을 따뜻하게 수용하신다는 점이었다.

찬찬히 둘러보기/ 자연을 만나고

본래 계획은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하지 못했던 세상 둘러보기를 열심히 해볼 생각이었으나 코로나 상황이어서 여행이 많이 어려워졌다. 특히 해외여행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가능한 우리나라의 자연을 둘러보는 여행으로 계획을 바꾸었다.

일주일에 2박 3일의 여행. 여행 기간이 너무 길면 그 후유증이 있어서 딱 이 정도가 적절했다. 마음과 뜻이 통하는 이들과 여행을 함께 하거나 그분들의 댁으로 방문하거나 또는 그분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먹고 자고 걷고 삶을 이야기했다.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삶의 경험치가 비슷한 사람들과 만남도 또 하나의 중요한 삶의 배움이었다. 특히 지금까지 내가 주로 직장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삶의 결이 많이 다른 이들과의 만남은 다양한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적절한 취미 찾기/ 걷기도 즐기고

여행하거나 손님맛이를 하지 않는 날은 오전에 책을 읽고 오후에는 걷는다. 하루 걷기 목표를 7,000보 정도로 하는데 주 4일 이상은 달성하는 편이다. 시골이라 밖에 나가면 마스크를 할 필요도 없고 계절 따라 색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곳도 주변에 많아서 요일별로 걸어도 몇 번 가지 못하고 한 계절이 다 지나간다. 넷플릭스를 통해 멋진 영화를 보는 것도 새로운 취미로 자리 잡았다. 아름다운 세계 여행도 하고 인체에 대한 신비도 알고 여러 가지 글로벌 농산물시장의 흑막도 이해하고 마음 따뜻해지는 드라마도 보고 멋진 청년들의 트로트 노래도 듣는다.

지난 학기부터는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다. 여러 일정 때문에 결석하는 일도 잦지만 나름으로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그리고 몇 곡은 안 되지만 혼자 노래 부르며 기타 치는 즐거움이 크다. 캘리그라피(손글씨)도 시작했는데 돌아다니느라 시간이 안 맞아서 지금은 기타수업만 계속 수강하고 있다. 다음엔 외국어에 도전해볼 생각이다. 전 세계에서 영어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소통한다는 스페인어에 도전해보려고 한다.



지금 여기서 행복하기/ 나를 좀 더 깊게 만나고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꾼다. 그러나 현실적인 삶은 고통이 더 많은 듯하다. 그런데 그 원인은 밖으로 향한 삶 때문이라고 한다. 행복을 찾아서 내면으로의 여행이 필요한 것이다. 아침에 커피 한잔을 마시며 조용한 서재에 앉아서 나를 찾는 여행을 시작한다.

차를 타고 둘러보는 풍경에서부터 배를 타고 섬으로 가서 그곳에 가려있던 자연의 모습을 오래 만나보고, 이른 봄의 동백부터 벚꽃, 진달래, 철쭉, 연꽃을 거쳐 단풍과 억새에 이르기까지, 계절 따라 완연한 자연의 눈부신 변화를 보며, 우리의 삶도 거기에 비추어본다.



감사일기 쓰기: 감사일기는 사실 몇 년 전 어느 모임에서부터 쓰기 시작했다. 하루에 감사한 일을 생각하며 적어보는 것이다. 처음엔 하루에 감사할 일 3개 적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러나 자꾸 적다 보니 감사하는 사고로 전환이 일어난다. 오늘 하루 살아있음, 내가 건강한 것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 일어나는 모든 일, 자연의 변화까지 모두 감사할 일들이다. 감사할 일이 많으니 자연스레 행복해지는 것이다. 감사일기 쓰기는 모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프로그램 따라 해보기: 요즘 워크북 형태의 책으로 나를 알아보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어떤 것들은 6주, 8주가 필요하고 더 긴 것도 있다. 끊임없이 채우던 시간을 계속해서 버리고 비우는 시간으로 바꾸어간다. 그런 프로그램을 따라 하다 보면 나를 보다 분명하게 보게 되고 더욱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마무리하며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 현직에 있을 때 내가 좀 더 여유를 갖고 이런 과정을 경험했다라면, 학생들과 행복한 삶에 대하여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졸업

생들이 사회에 나가 어려움에 부닥쳐도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었고, 학생과 더 행복하게 만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많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난 일이고 지금이 실제니까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사랑해야 할 일이라고 위로한다. 간호사의 삶이란 학생 때부터 현직 그리고 퇴직해서도 바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한걸음 멈추고 돌아보며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여러분에게 권한다.

후배들이여, 아침 시작을 좀 더 여유롭게 하고, 주말에는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책들을 읽고, 시간이 허락할 때 마음 따뜻한 어른들을 만나고, 아름다운 계절에는 짧은 여행도 하면서 내가 잘살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찾으면서 살기를 부탁한다. 바쁜 일상으로 힘든 나날이지만 의도적으로 노력해본다면 못할 것도 아니라 싶다. 할 수 있는 만큼 감사하며 즐겁게 해보는 것이다.

제30회 학술발표회

제50회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제30회 학술발표회 및 포럼을 2021년 6월 17일(목) 경상남도간호사회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남지역연합회 주최로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발표 논문 국문초록

상명	발표자 및 기관명	논문제목
우수논문상	이재정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환자안전 위험요인 인식, 환자안전역량이 안전 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
참가상	유수연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관상동맥 질환자의 건강행위 이행에 미치는 요인
	정지영 삼성창원병원	경직장 초음파 유도 전립선 조직검사 환자의 불확실성 영향요인



우수논문상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환자안전 위험요인 인식, 환자안전역량이 안전 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

이재정, 정다인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사 · 전미양 /경상국립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환자안전 위험요인 인식, 환자안전역량과 안전 간호활동 정도를 조사하고 안전 간호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환자안전 위험요인 인식, 환자안전역량, 안전 간호활동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안전 간호활동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환자안전 위험요인 인식, 환자안전역량, 안전 간호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안전 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환자안전 위험요인 인식과 환자안전역량 및 안전 간호활동정도를 파악하고 안전 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상남도 소재 16개 병원의 혈액투석실의 간호사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혈액투석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혈액투석 업무를 하지 않는 간호사는 제외하였다.

대상자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f^2)는 회귀분석의 중간크기 수준인 0.15, 예측변수의 수 16개(일반적 특성 14개, 환자안전 위험요인 인식, 환자안전역량)로 설정하였을 때 146명이 나왔고,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60명의 간호사를 선정하였다. 설문지 회

수 결과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총 146부가 자료분석에 활용되었다.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 Ver 24.0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2) 대상자의 환자안전 위험요인 인식, 환자안전역량, 안전 간호활동의 정도는 평균 과 표준 편차로 산출하였다.
-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혈액투석실 환자안전 위험요인 인식, 환자안전역량 및 안전 간호활동은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 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환자안전 위험요인 인식, 환자안전역량, 안전 간호활동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안전 간호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안전 간호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단계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 특성 중 안전 간호활동에 차이를 보인 1) 근무병원 형태(의원급 기준) 2) 교육정도(전문대졸 기준) 3) 병원근무경력(3년 미만 기준) 4) 1일 평균 투석건수(50회 미만 기준) 5) 간호사 1명당 투석건수(5~7회 미만 기준) 6) 환자안전 교육경험(없다 기준) 7) 환자안전 사고보고 등록체계유무(없다 기준) 8) 환자안전 사고보고 등록체계 직접등록여부(안한다 기준)를 더미처리 하였고 9) 안전 간호활동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환자안전역량을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안전 간호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안전 사고보고 등록체계 직접등록여부($\beta=.30, p<.001$) 이었으며, 다음으로 환자안전역량($\beta=.28, p<.001$), 간호사 1인당 투석건수 5~7회 미만($\beta=-.24, p=.001$) 이었다. 즉, 환자안전 사고보고 등록체계에 직접등록을 할수록, 환자안전역량이 높을수록, 간호사 1인당 투석수가 5~7회 미만에 비해 5회 미만일수록 안전 간호활동 점수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요인들에 의한 설명력은 32.1%이었다($F=23.85, p<.001$).

결 론

본 연구 결과,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안전 간호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

안전사고보고 등록체계 직접등록 여부였으며, 다음으로 환자안전역량, 그리고 간호사 1인당 투석건수로 나타났다. 즉, 환자안전 사고보고 등록체계에 직접등록을 할수록, 환자 안전역량이 높을수록, 간호사 1인당 투석수건수가 5회 미만일수록 안전 간호활동 점수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요인들에 의한 설명력은 32.1% 이었다.

따라서, 혈액투석실의 안전 간호활동 향상을 위해서는 환자안전 사고보고와 관련된 환자안전보고서를 직접 등록 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의원급에도 환자안전 등록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설치되어야 하고 환자안전과 관련된 지식, 태도, 기술과 관련된 환자안전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인력 충원으로 간호사 1인당 투석건수가 5회 미만으로 이루어져 좀 더 세심한 환자관찰과 간호로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빠르게 찾아냄으로서 안전 간호활동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관상동맥 질환자의 건강행위이행에 미치는 요인

유수연, 이영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사

서민정 /경상국립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연구목적

입원한 관상동맥질환자의 위험인자와 건강동기가 건강행위 이행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여 건강행위 이행에 대한 관리중재를 수립하고 수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입원한 관상동맥 질환자의 위험인자와 건강동기가 건강행위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는 J시 소재 G 대학병원 순환기내과 병원에서 입원한 성인 관상동맥질환자를 대상으로 편의 표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검정력(1-β)=0.85, 유의수준 α=0.05, 효과크기(Effect Size) Medium=0.15로 하였을 때 115명이 필요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t-test, ANOVA, Scheff's test, pearson's correlations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인 특성 중 나이가 건강행위이행에 영향을 미치며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행위이행을 잘한다고 할 수 있다. 위험인자 중 가변인자가 건강행위이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가변인자 점수가 낮을수록 건강행위이행을 잘한다고 할 수 있다. 건강동기 중 자기효능감이 건강행위 이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행위 이행을 잘한다고 할 수 있으며 총 설명력은 53.1%였다.

결 론

연구 결과를 토대로 건강행위 이행에는 건강동기 중에서 자기효능감이 주된 요인이므로 관상동맥질환자에게 자기효능감 강화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서 이에 따른 건강행위 실천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간호중재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경직장 초음파유도 전립선 조직검사 환자의 불확실성 영향요인

정지영, 서은정 /삼성창원병원 간호사·신순식 /삼성창원병원 파트장

연구목적

가장 불확실성이 큰 진단단계의 경직장초음파 유도 전립선 조직검사 환자를 대상으로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경직장초음파 유도 전립선 조직검사 환자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간호중재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 되었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경직장초음파 유도 전립선 조직검사를 위하여 경남 C시에 소재하는 S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로서,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대상자 수: G*Power 3.1.0 표본수 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수는 87명 이었으나, 탈락율 20%를 고려, 11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 중 불충분한 설문응답을 한 13명을 제외한 97명이 최종 연구대상 임.

2. 연구도구: 간호교육 만족도, 의료인에 대한 신뢰, 자가간호, 불확실성 도구

3. 자료분석 방법: SPSS/WIN 18.0 program 으로 분석함.

-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 t-test, ANOVA, Scheff's test
-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다중회귀분석

연구결과

1. 불확실성의 평균점수는 $2.68 \pm .39$ (5점척도).

하위영역: 애매모호성 $2.88 \pm .61$ 점(5점척도)으로 가장 높았으며, 불예측성 $2.87 \pm .30$ 점(5점척도), 불일치성 $2.52 \pm .52$ 점(5점척도), 복잡성 $2.40 \pm .41$ 점(5점척도) 순으로 나타남.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에 차이를 보인 변 : 연령($F=4.97, p=.009$), 교육수준($F=11.16, p<.001$), 월 평균소득($F=3.18, p=.028$), 건강상태($F=8.40, p<.001$), 건강검진 실시($t=-2.47, p=.015$)로 나타남.

3. 불확실성은 간호교육 만족도($r=-.47, p<.001$), 의료인에 대한 신뢰($r=-.50, p<.001$), 자가간호($r=-.21, p=.035$)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 1단계 분석결과: 일반적 특성중에서는 교육수준(고졸, $\beta=-.29, p=.023$, 대졸이상, $\beta=-.34, p=.016$), 건강상태(좋음, $\beta=-.40, p=.005$)가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단계 회귀모형은 유의하며($F=.40, p<.001$),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력은 24%이었다.

• 2단계 분석결과: 일반적 특성중에는 교육수준(고졸, $\beta=-.30, p=.010$, 대졸이상, $\beta=-.38, p=.004$)이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상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변수 중에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beta=-.31, p=.011$)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572, p<.001$), 1단계 회귀모형에 비해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력이 15% 증가하여 불확실성에 대한 총 설명력은 39%였다.

결 론

• 진단단계의 전립선 조직검사 환자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은 중요하며, 평소 건강검진 실시 등으로 건강을 잘 관리하도록 하고, 생소한 검사 및 질병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고, 연령대에 맞는 눈높이 교육으로 간호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생활 활동, 즉 자가간호를 잘 수행하도록 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의료진은 환자의 요구나 질문에 경청하고 이해해주며, 깨끗한 용모와 복장을 갖추고 환자를 배려, 존중해주는 태도를 보이며, 다양한 지지체계를 이용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환자에게 전문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경남간호사회 '간호법이 필요해' 응원 포스터 제작

경남간호사회(회장 박형숙)는 간호법 제정을 응원하는 포스터를 제작했다. 이번 포스터에는 간호법 제정을 염원하는 경남간호사회 회원들과 간호대학 교수 및 학생들의 마음이 담겼다. 포스터는 응원 글귀가 쓰인 피켓을 들고 인증샷을 촬영한 사진으로 디자인되었으며 3종류로 제작하였다. 경남간호사회는 포스터를 도내 병원과 간호대학 등에 배포하였다. 각 포스터에 들어간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 “경상남도 내 간호대학(과)은 간호법 제정을 응원합니다”
- “환자안전을 위한 15,000여 명 회원들의 메시지, 간호법이 필요해”
- “OECD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간호법이 없는 나라, 간호법이 필요해”





간호정책 특강 실시 — ‘간호 관련 법·제도의 이해’

대한간호협회는 일선 현장 간호사의 건디기 힘든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환자안전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진행 중이다.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17개 시·도 간호사회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에게 새롭게 변화된 주요 간호정책 및 간호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일제히 교육을 실시하였다.

경상남도간호사회에서도 박형숙 회장은 5월 27일 본회 임원들 교육을 시작으로 경남도내 간호대학 학과(부)장, 6월에는 경희대학교, 교육협력 중앙병원, 김해시간호사회 회원, 삼성창원병원,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7월에는 베데스다복음병원, 거봉백병원, 10월에는 경상국립대학교 간호대학원, 11월에는 창원문성대학교 간호학과,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등 경남도내 각 병원의 간호사와 간호대학 교수 및 간호대학생들에게 총 14회 특강(필수 보수교육 과정 8회 포함)을 실시하였으며, 보건교사 720명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간호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경남간호사회 간호역량개발 간호연구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경남간호사회(회장 박형숙)는 2021년도 간호역량개발 간호연구지원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거쳐 접수된 연구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다음 두 팀이 선정됐으며, 연구주제 및 연구자는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을 위한 코로나19 환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연구책임자 강기노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공동연구자 이옥중 창원시보건소 감염병대응담당, 이재운 국립부곡병원 정신건강사업과 팀장, 장미영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서 간호사를 위한 그릿(Grit) 이론을 기반한 '열정 지속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연구책임자 이도영 창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공동연구자 제남주 창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운정 창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장춘선 삼성창원병원 교육수간호사, 김현주 창원파티마병원 수간호사, 김현숙 창원시보건소 건강관리과 계장, 이선숙 함안군보건소 보건행정과 계장

'간호연구지원사업'은 경남 도내 회원들의 연구능력 함양, 다학제간 연구의 활성화 및 학술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선정된 팀에게는 연구비가 지원된다.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기획해 두 팀을 선정해 지원한 바 있다.

2021년 본회 주요소식

제77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박형숙)는 제77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2021년 3월 17일(수) 개최하여 2021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총회는 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열렸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형숙 경상남도간호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간호사들은 감염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여왔고, 이를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재조명받게 되었다고 하며, 특히 올해는 100년 숙원사업인 간호법 제정을 위하여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하여 회원들에게 방역물품과 간식, 아이스 조각 등을 지원하여 격려하였으며, 올해 2월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경남센터에서 간호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회원들의 연구능력 함양과 다학제간 연구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연구지원사업을 기획하여 두 팀에게 지원하는 성과가 있었다. 경상남도간호사회는 올해도 간호연구지원사업을 계속 추진 예정이며, 회원과의 온라인 소통에 힘쓰고, 지역 언론매체 등을 통해 간호사회 활동과 간호사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총회 개최식에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의 영상 격려사가 있었으며, 강기윤 국회의원과 최연숙 국회의원이 영상 축사를 보내왔다.

대한간호협회 제87회 정기 대의원총회 참석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제87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2021년 2월 23일(화) 롯데호텔 서울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하에 회의장을 4곳으로 분산하여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였으며, 본회에서는 박형숙 회장을 비롯하여 6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였다.

신경림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가 빛은 비대면 사회는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내 간호정책과와 간호법의 부활과 법에 규정된 간호사 인력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특히 “국민을 지키는 간호사를 이제 국가가 더욱 든든히 지키겠다”며 “간호계의 오랜 숙원사업도 지혜를 모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의 현장에 앞장서 준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5개 항도 결의하였으며, 지난 한 해 각 분야에서 간호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간호사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회원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다.

제50회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제30회 학술발표회 및 포럼 개최

제50회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제30회 학술발표회 및 포럼을 2021년 6월 17일(목) 경상남도간호사회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남지역연합회 주최로 본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하영미 교육위원장의 사회로 발표자 및 공동연구자, 교



육위원, 임원,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 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 하에 진행하였으며, 본회 박형숙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논문을 내어주시는 회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 환경의 패러다임에 맞는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당부하였으며, 이어 논문발표가 이어졌다. 교육위원들의 발표논문에 대한 강평과 함께 우수논문 1편을 선정하여 상장과 상금 50만 원, 그 외 전원 참가상장과 상금 30만 원을 수여하였으며, 이재정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사의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환자안전 위험요인 인식, 환자안전역량이 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남지역연합회(회장 임근희)에서 전문가 활용비를 지원받아 참가자들을 격려하였다.

경남도내 간호대학(학과)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간호대학(학과)에서는 간호사로서 필요한 필수 간호교과목 수업을 마치고 병원 등 현장 실습을 나가기 전 나이팅게일선서식을 진행하여,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고 간호사로서의 신념과 가치

를 다지는 계기를 갖는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지만, 경남 도내 간호대학(거제대, 경상국립대, 경상국립대 생명과학대학, 경남대, 가야대, 김해대, 마산대, 부산대, 영산대, 진주보건대, 창원문성대, 창신대)에서는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선서식을 진행하였다. 본회 박형숙 회장은 축사를 통하여 실습현장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미래 간호사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격려했으며, 비대면의 경우 영상축사로 격려와 축하 인사를 전하였다.

2021년도 간호교육 질 향상 세미나 개최 (간호대학·병원 간호부)



본회 교육위원회 주최로 2021년 12월 8일(수) 실시간 ZOOM으로 방역지침 하에 경남 도내 간호대학 교수와 병원 간호부에서 총 51명이 참석하여 2021년도 간호교육 질 향상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간호대학생들의 병원 현장 실습의 제한 등으로 교내실습 대체로 인한 문제, 취업 시 현장 적응의 어려움 등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습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간호사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하여 그룹별 토의와 발표가 있었다.

그룹별로 간호대학과 병원의 현장 상황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는데 의학용어 및 핵심기본간호술 교육의 강화 교육의 중요성, 병원별 실습대학과 함께 연석회의를 통한 실습지 분배 등 실습병원 부족 문제 논의의 필요성, 코로나 상황에서의 실습교육에 대한 유연성 있는 접근을 위한 교내실습 및 시뮬레이션 실습에

대한 질적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건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방안들이 도출되었다.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기자회견 및 수요집회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와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2021년 12월 1일 국회 앞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된 간호법 제정안의 12월 중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국의 110명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이 참여하였으며, 경남간호사회는 총 33명 중 7명이 방호복을 착용하고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으며,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료단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2021년 12월 29일(수)은 창원시 성산구가 지역 구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격려 방문하여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간호사의 간절함이 담긴 법이라며 여러분의 뜻이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한다. 간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기빙클럽 후원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박형숙)는 2020년 6월 3일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회장 김종길)와 업무협약을 맺은 후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다.

2021년에는 적십자사의 지원 활동 중 위기가정 긴급지원 및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참여하기로 하여 12월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기빙클럽에 300만 원을 후원하였



다. 박형숙 회장은 경남지사를 방문하여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정신과 우리 간호사들의 정신이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중 긴급한 도움이 손길을 필요로 하는 위기가정에 지원하여 이들의 복지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종길 회장은 코로나19로 간호사들의 힘든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였다.

본회 산하 간호인력취업교육 경남센터 운영



본회에서 운영 중인 간호인력취업교육 경남센터(박형숙 운영위원장)에서는 경남 도내 유휴간호사 발굴, 교육 및 취업까지 지원하여 2021년 예상 목표 수 대비 교육이수자는 87%의 성과를 내었다. 올해도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도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상황에 맞추어 화상 강의 등 다양한 방법을 교육에 적용하여 시행하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병원 간호인력 직무교육이 116% 달성하였고, 긍정적인 조직문화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실시한 조직문화개선교육과 신규간호사 이직방지교육을 실시하여 목표 대비 113% 달성하였다. 그 외 간호관리자 실무역량강화교육 기본과 상급과정, 실습지도자 양성교육 기본과 강사과정, 예비

간호사 진로교육(온라인), 상시실기교육, EMR교육과 유휴간호사 재취업교육 이수자 및 신규간호사 대상으로 기본심폐소생술(BLS)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대상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21년 보건의료 관련 유공 표창 수상 현황



- 제49회 보건의날 유공자 경상남도지사 표창 (2021.04.07.)
 - 심혜영 김해보훈요양원 간호과장
 - 이슬 경희대학교 교육협력 중앙병원 간호사
- 코로나19 대응 유공자 장관 표창(2021.06.03.)
 - 최금숙 창원한마음병원 간호팀장
- 양성평등주간기념 양성평등진흥 유공자 경상남도지사 표창(2021.09.01.)
 - 이신원 새통영병원 간호부장
- 롯데장학재단 '간호사 가정 장학금' 지원 선정 (2021.11.08.)
 - 남혜진 마산의료원 간호사
 - 황숙경 마산의료원 책임간호사
 - 박화천 삼성창원병원 책임간호사
 - 강예주 삼성창원병원 책임간호사
- 감염병관리 유공자 질병관리청장 표창(2021.11.29.)
 - 경상남도 마산의료원(단체)
- 코로나19 대응 유공자 경상남도지사 표창 (2021.12.24.)
 - 이우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간호4급
 - 송유나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5급
 - 안은미 경희대학교 교육협력 중앙병원 수간호사

2021년 분회 주요소식

| 창립순으로 |

진주시간호사회 | 2008. 07. 09.

제1차 이사회 개최

진주시간호사회(회장 김영미)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회의가 불가하여 2021년 4월 29일(목) 줌(ZOOM) 화상회의로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역량을 발휘할 후배들을 위하여 진주시내 소재 간호대학 졸업생에게 학과당 1명씩 진주시간호사회회장상으로 표창장과 함께 부상으로 상품권 10만 원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경상국립대학교(양지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고윤희), 진주보건대학교(김세하), 한국국제대학교(함효민)이다.

2020년 예결산 보고와 2021년 예산안 결의가 있었으며, 매년 추진해 오던 간호봉사와 복지재단 봉사에 대한 논의결과 코로나로 인한 대면행사의 불투명한 상황과 재정수입 감소로 인하여 모든 행사와 활동은 잠정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진주시간호사회 총회 제2차 이사회로 대체

진주시간호사회는 지속적인 코로나19의 여파로 2021년 12월 9일(목) 제2차 이사회도 줌(ZOOM)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진주시간호사회 총회 또한 개최되지 못하여 이사회로 대신하도록 가결되었다.

2022년 보수교육 개최에 대하여 내년부터 변경되는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신청에 의한 인정기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다. 2021년을 마무리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간호봉사와 활동, 체육대회 및 회원 단합행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많은 상태로 2022년에는 코로나19의 추이에 따라서 진행부 결정하기로 했다.

2021년 정년퇴임은 고은선, 조창경 회원으로 퇴임을 축하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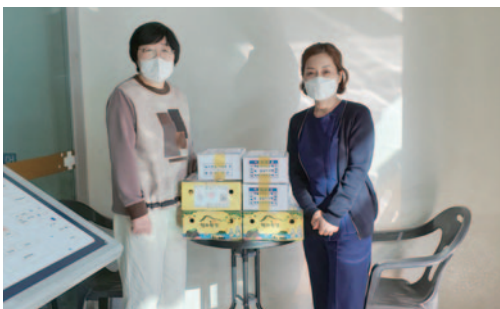
거제시간호사회 | 2008. 10. 10.

거제시 간호봉사



거제시간호사회(회장 이정재)는 2021년 11월 27일(토) 간호봉사를 실시했다. 이정재 회장 외 임원 8명이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봉사활동 장소는 파랑포 안나의집(노인요양시설), 작은예수의집(장애인시설)을 방문했다. 안나의집 입소자 18명, 직원 14명, 작은예수의집 입소자 10명, 직원 4명을 포함하여 총 45명을 대상으로 활동내용은 보건교육(기본소생술, 이물제거), 기도폐쇄, 혈당측정 및 혈압측정, 건강상담을 하였으며, 의료용품 및 다과도 제공했다.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 위로 방문



거제시간호사회는 2021년 11월 9일(화) 코로나19 발생으로 환자 및 직원들의 코호트 격리로 힘들어하는 간호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정재 회장과 강미경 총무가 거제요양병원을 방문하여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통영시간호사회 | 2008. 10. 10.

간호역량개발사업(목공예 활동)



통영시간호사회(회장 성명숙)는 통영풀잎문화센터에서 2021년 10월 5일(화)부터 10월 14일(목)까지 총 8회에 걸쳐 통영시간호사회 이사 및 회원 80명이 간호사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목공예 체험활동(목공예 트레이 만들기)을 실시했다. 보다 많은 회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본회 지원금에 더해 통영시간호사회 분회 자부담을 지원했다. 이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회원 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통영시간호사회는 2021년 12월 13일(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통영시간호사회 회원으로 2021년도에 통영 소재지에 노인간호재가센터를 오픈하였으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과 가정 형편이 어렵고 몸이 불편한 홀로 어르신 가정을 선정하여 통영시간호사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30만 원을 각각 지

급하여 격려했다.

하동군간호사회 | 2008. 11. 12.

코로나19 지원사업



하동군간호사회(회장 임인숙)는 2021년 12월 24일(금) 오전11시경 하동군 보건소를 방문하여 2년 동안 코로나19 감염위기관리 및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지쳐 있는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동군간호사회 이사회의 결로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김해시간호사회 | 2009. 04. 19.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동참



김해시간호사회(회장 권영채)는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 3회 동참했다.

- 1차(2021.11.23.) : 이옥경 김해시간호사회 제1부회장 외 5명(김귀숙, 김미남, 조진, 허현정, 정채원) 참여
- 2차(2021.12.01.) : 권영채 김해시간호사회 회장 외 9명(황영은, 김가정, 유민지, 홍미라, 이미연, 전인경,

이상화, 조미림, 신선우, 오태언) 참여

- 3차(2021.12.14.) : 권영채 회장, 박영미 사무국장 참여

농촌일손돕기

김해시간호사회는 2021년 11월 13일(토)에 '농촌일손돕기' 행사에 권영채 회장이 참석하여 밀양시 소재 사과밭에서 사과 수확 봉사에 참여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일손부족에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간호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장애인후원 김장나눔 봉사



김해시간호사회는 2021년 11월 21일(일)에 '코로나19 수평적사회 장애인후원 김장나눔' 행사에 권영채 회장과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5명이 참석하여 김장 및 포장 봉사로 소외계층을 위한 도움에 동참했다.

지역기관 행사 참여



김해시간호사회는 지역기관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다. 2021년 9월 4일(토) 가야대학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개소식 참석, 2021년 9월 27일(월) 통합돌봄 방문간호 위원회 참석, 2021년 10월 28일(목) 가야대학교 나선식 참석, 2021년 11월 3일(수) 김해대학교 나선식 참

석, 2021년 11월 11일(목) 경희대학교 가이료원(가칭) 기공식에 참석했다.

양산시간호사회 | 2009. 05. 28.

소속기관 격려 방문



양산시간호사회(회장 김미희)는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각 기관을 방문하여 격려금(상품권)을 전달했다. 김미희 회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전방에서 노력하는 간호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거창군간호사회 | 2010. 06. 18.

장학금 지원사업



거창군간호사회(회장 유광자)는 2021년 6월 3일(목) 회장 및 임원들이 경남도립거창대학을 방문하여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거창군간호사회의 장학금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관내 6개 중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해 왔

며, 금년부터는 지역의 우수한 보건의료인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장학금을 기탁 받은 거창대학교 박유동 총장은 “거창군간호사회의 후학양성에 대한 장학금 기탁에 감사를 표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양성하는데 뜻 깊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간호사회는 2010년 창립되어 회원들의 권익옹호와 자질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는 든든한 단체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소 위문 방문



거창군간호사회는 2021년 8월 27일(금) 거창군 보건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응원하며, 샌드위치 및 음료 등 간식을 전달했다. 유광자 회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연일 고생 중인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거창군간호사회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호역량개발사업

거창군간호사회는 2021년 간호역량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치친 간호사를 위한 힐링의 시간 “마음근육강화 프로그램”을 2021년 11월 11(목)~11월 12일(금) 양일간 실시했다. 3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플라워 리스 만들기 및 견과바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 간의 단합은 물론,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남해군간호사회 | 2013. 12. 20.

남해병원 화재 이웃돕기 성금 기부

남해군간호사회(회장 강영화)는 2021년 2월 1일(월) 새벽 2시경 남해병원 화재가 발생하여 100여 명의 환자가 인근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소방출동 인원은 소방대원 168명과 지원 인력 100명이 투입되었고 경찰, 봉사단체, 군 6개 부대가 출동하기도 하였다. 많은 이들의 배려와 희생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다. 2021년 2월 3일(수) 일선에서 수고한 간호사들과 직원들을 위한 위로 성금을 남해병원 간호과장에게 전달했다.

‘모범공무원’ 선정 국무총리 표창 수상

남해군간호사회는 2021년 7월 8일(목) 남해군보건소 감염병예방팀 정현주 팀장(남해군간호사회 이사)이 상반기 ‘모범공무원’에 선정되어 영예로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합천군간호사회 | 2015. 05. 26.

정서발달장애인 후원



합천군간호사회(회장 이미경)는 2021년 5월 ~ 12월까지 정서발달장애아 6명에게 심리적 정서지원

을 위해 청소년 교양서적 ‘데일리 투모로우’를 정기구독 후원을 했다.

코로나19 현장 응원 물품 전달(상반기)

합천군간호사회는 2021년 8월 30일(월) 코로나19로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간호사들을 응원하기 위해 폭염 대비 냉방조끼 10점을 합천군보건소(선별진료소, 예방접종센터)에 전달했다.

코로나19 현장 응원 물품 전달(하반기)



합천군간호사회는 2021년 12월 27일(월) 코로나19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합천군보건소와 코로나 선별진료소를 찾아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2021년 코로나19 대응인력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이겨냅시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딸기 200팩을 전달했다.

밀양시간호사회 | 2016. 03. 19.

비대면 정기총회 개최

밀양시간호사회(회장 이명순)는 코로나19로 2021년 5월 29일(토) 비대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명순 회장 외 12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2020년 사업시행결과보고 및 결산보고,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계획안을 심의했다.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참석

밀양시간호사회는 2021년 11월 23일(화) 간호법 제정



축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에 이명순 회장 외 2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간호법 제정 촉구 2차 결의대회 참석



밀양시간호사회는 2021년 12월 1일(수) 간호법 제정 촉구 2차 결의대회에 이명순 회장 외 1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함안군간호사회 | 2017. 03. 27.

제3회 정기총회 개최



함안군간호사회(회장 옥행자)는 2021년 7월 8일(목)

함안문화예술회관 연회장에서 초청인사 및 간호사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회장 이·취임식과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층 더 성장한 함안군 간호사회의 면모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다.

회장단 선별진료소 봉사활동



함안군간호사회는 2021년 7월 17일(토) 회장단(홍은주 전 회장, 옥행자 현 회장)이 코로나19 대응요원들의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선

별진료소 내부 청소와 물품정리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감염병으로 지쳐있는 근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주말에 구슬땀을 흘렸고, 대응요원들은 같은 처지에 있는 의료인으로써 미안해하면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선별진료소 운영 민간의료기관에 음료 기부



함안군간호사회는 2021년 7월 29일(목) 최근 확진자 다수 발생으로 인해 폭염에도 불구하고 선별진료소를 묵묵히 지켜내고 있는 간호사회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비타민 음료를 제공하였다. 옥행주 회장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사명감 하나로 견뎌내는 회원님들의 건강을 걱정하며 힘내시라고 전했다.

함안군에 기부금 기탁



함안군간호사회는 2021년 8월 4일(수) 취약계층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되길 바라면서 기부금 100만 원

을 함안군에 기탁했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아름다운 기부 감사하다고 하였고, 코로나19 대응으로 의료현장 곳곳에서 간호사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에게까지 관심을 가져주시 더욱 감사하다고 하였다. 또한 좋은 곳에 귀하게 사용하라고 지시하셨고, 함안군간호사회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코로나19 대응 현장 속 간호사 위문 방문



함안군간호사회는 2021년 8월 12일(목) 확진자가 2,000명이 넘는 상황에서 검체를 위해 8월의 살인

무더위 속에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으로 함안군간호사회장단이 위문 방문하였다. 지침을 달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음료를 제공하였고, 사명감 없이는 해내기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 대단하고 경의를 표한다.

간호법 제정 챌린지 참여



함안군간호사회는 2021년 7월 22일(목) 신속한 간호법 제정을 기원하며 챌린지에 적극 참여했다.

걷기 행사 진행



함안군간호사회는 2021년 11월 6일(토) 그동안 방역준수를 위해 진행하지 못한 야외 단체 활동을 재기하면서 첫 활동으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아라가야 역사순례길 17.6km 완주코스 목표를 달성했다. 청명한 날씨에 간식과 맛있는 점심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기념품도 푸짐하게 받았다. 참석한 회원 모두 건강도 챙기고 선물도 챙기고 즐거움이 충만한 하루가 되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회원들이 있어 아쉬움이 남으며 다음을 기약해 본다.

간호역량개발사업



함안군간호사회는 2021년 11월 27일(토)과 11월 30일(화) 양일간에 걸쳐 간호역량

개발사업(가죽공예)을 실시했다. 간호사로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였으며 새로운 경험에 대해 참여 회원은 만족했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경상남도 간호대학 현황

2022년 경상남도 간호대학 현황

번호	학교명	간호교육 인증평가 연도	학과장 (학장 및 학부장)	정원 (정원외)	주 소 (우편번호)	운영과정 (대학원, 전공심화, 전문간호사 외)	총 학생 수	
							남	여
1	가 야 대 학 교	2020	조정림	149 (22)	김해시 삼계로 208 (50830)	보건대학원, 의료인 편입	673	
							673	520
2	거 제 대 학 교	2020	이수연	110 (10)	거제시 마전1길 91 (53325)		452	
							100	352
3	경 남 대 학 교	3주기 (2019년)	마예원	95 (9)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 (51767)	대학원	422	
							87	355
4	경남도립거창대학	2020	김은희	65 (2)	거창군 거창읍 거창대학로 72 (50147)		234	
							49	185
5	경상국립대학교 생명과학대학	2020	최소영 (학장)	110	진주시 진주대로 501 (52828)	일반대학원, 보건대학원, 노인전문간호사과정	338	
							85	253
		2020	홍은영		진주시 동진로 33 (52725)	대학원	116	
							34	82
6	김 해 대 학 교	2020	조영란 (학부장)	145 (56)	김해시 삼안로112번길 198 (50811)		770	
							166	604
7	동원과학기술대학교	2019	김희진	133 (54)	양산시 명곡로 321 (50578)		619	
							132	487
8	마 산 대 학 교	2020	남정자 (학부장)	342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함마대로 2640 (51217)	전공심화과정	1,307(447)	
							258	1,036
9	부 산 대 학 교	2020	이해정 (학장)	80 (9)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로 49 (50612)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전문간호사과정(감염, 중환자, 정신, 노인)	412	
							100	312
10	영 산 대 학 교	2019	윤선영	95 (20)	양산시 주남로 288 (50510)	일반대학원	466	
11	진주보건대학교	2020	백명화 (학부장)	254 (121)	진주시 의병로 51 (52655)	학사교육과정 학점은행제	1,424	
							286	1,138
12	창 신 대 학 교	2020	제남주 (학장)	100 (15)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51352)	일반대학원, 학점은행제, 전문간호사과정(호스피스)	458	
13	창 원 대 학 교	2019	전미경	36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51140)	일반대학원, 보건대학원 간호학과(석사, 박사), 보건학전공(야간)	120	
							24	96
14	창원문성대학교	2021	전윤희	120 (38)	창원시 성산구 충훈로 91 (51410)		420	
							94	326
15	한국국제대학교	2021	오수미	160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965 (52833)		167	
							42	125

(2022. 3. 1. 기준)

2022년 경남간호사회 임원

직 위	성 명	근무처 및 직책
회 장	박 형 속	김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제1부회장	남 정 자	마산대학교 간호학부장
제2부회장	성 명 속	통영서울병원 간호이사
이 사	권 영 채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 미 희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간호본부장
	김 희 자	전) 거제대우병원 간호부장
	박 신 속	SMG연세병원 간호이사
	박 옥 명	창원파티마병원 간호과장
	박 옥 엽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부장
	신 미 란	삼성창원병원 간호본부장
	이 옥 경	경희대학교 교육협력 중앙병원 간호본부장
	전 진 선	전) 마산우리요양병원 간호부장
	조 상 희	진주고려병원 간호국장
	조 수 정	거제맑은샘병원 간호부장
	하 영 미	경상국립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감 사	손 계 순	거창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담당주사
	이 종 임	전)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부장
사무처장	양 은 주	경상남도간호사회 사무국

(2022. 3. 기준)

2022년 경상남도간호사회 분회 회장

단체명	성 명	근무처
창원시간호사회	송경희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진주시간호사회	김영미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과장
거제시간호사회	이정재	거제 대우병원 간호부장
통영시간호사회	성명속	통영서울병원 간호이사
창녕군간호사회	권경순	국립부곡병원 간호과장
하동군간호사회	서미옥	하동군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고성군간호사회	이윤희	고성군보건소 의약담당
김해시간호사회	권영채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양산시간호사회	김미희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간호본부장
사천시간호사회	최경숙	삼천포제일병원 간호본부장
거창군간호사회	유광자	경남도립거창대학 간호학과 교수
남해군간호사회	류진희	남해군보건소 치매예방팀 팀장
합천군간호사회	이미경	합천군보건소장
밀양시간호사회	이명순	밀양 차월보건진료소장
함안군간호사회	옥행자	함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담당

(창립순)

2022년도 상임위원

구분	직책	성 명	근무처
기획위원	위원장	남정자	마산대학교 간호학부장
		공명속	마산의료원 간호부장
	위 원	김 희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부장
		김정미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박신속	SMG연세병원 간호이사
		송경희	창원시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경숙	삼성창원병원 플로우매니저
		성명속	통영서울병원 간호이사
법제위원	위원장	김영희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신 은	국립마산병원 간호과장
	위 원	윤연옥	창원한마음병원 간호이사
		이명순	밀양 차월보건진료소장
		이옥경	경희대학교 교육협력 중앙병원 간호본부장
		전진선	전) 마산우리요양병원 간호부장
		하영미	경상국립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김미희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간호본부장
교육위원	위원장	김성진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은희	TH여성헬스케어 연구소장
	위 원	박옥엽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부장
		지영주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하주영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권영채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현정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객원지원팀장
재무위원	위원장	김희자	전) 거제대우병원 간호부장
		박옥명	창원파티마병원 간호과장
	위 원	조영란	김해대학교 간호학부장
		조정희	거봉백병원 이사
		홍은주	함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신미란	삼성창원병원 간호본부장
		김영란	창원엠아이병원 기획조정실장
		심봉희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행정교육팀장
홍보위원	위원장	이숙희	창원문성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조상희	진주고려병원 간호국장
	위 원	하재현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황진희	경남도립거창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포견지십자 레터



한해가 이렇게 빠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전 세계 코로나 시대의 혼란 속에 낮밤없이 지내다 보니 벌써 「경남간호」 통권27호 편찬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위원들의 노력으로 한 자 한 자 보고 또 보고 만들어 낸 소중한 우리들의 이야기들♡♡♡ 그날 희색빛 봄 날씨의 쌀쌀함에 얼마나 떨었던지... 진주 도서출판 사 람과나무 실장님께서 늘 내어 주신 따뜻한 구기자차 한 잔의 배려 또한 감사드립니다. 홍보위원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힘들지만 긴 터널의 끝자락에서 우리 모두 희망의 빛을 놓치지 말고 소중한 일상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신미란 위원장>

코로나로 인해 단절된 관계의 회복이 호랑이(임인년)의 기운으로 속히 오길 기대하며, '간호법 제정'이야말로 언제나 늘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우리 간호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김영란 위원>

겨우내 숨어있던 온갖 생명들이 아우성치듯이 드러나는 시절입니다. 여전히 코로나와 이웃하며 생사를 넘나 들지만 생명의 아름다움은 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간호사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되돌아 보는 계절, 모두 안녕하시길 기원합니다. <심봉희 위원>

코로나 확진자 폭증 소식에 움츠러들어 봄을 기대할 여유도 없었는데, 부르지 않아도 봄은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과 간호법 제정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국회에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경남간호」 통권27호에 담아 봅니다. <이숙희 위원>

앞으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예측할 수도 없고,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의 시간들을 보상받을 수도 없겠지만 코로나19와 함께한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노력들을 기록으로 남겨 봅니다. 훗날 웃으며 이날들을 이야기할 때가 찾아오겠지요. <하재현 위원>

올해 4년 차 편집위원으로서 지난해들을 돌아보니 코로나19 확산을 포함한 격변하는 시대적 이슈들이 「경남간호」의 '권두시'에서부터 '경남간호사회 이모저모'까지 반영되었고 간호사의 면모를 보여주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잘 표현되기 위한 편집 노력을 보았습니다. 또한 간호법 제정을 향한 수많은 발걸음과 간절한 기도가 이제는 결실로 맺어지는 날을 바라봅니다. <황진희 위원>



5월 12일은 국제 간호사의 날입니다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

올 1~3월 90일 동안 코로나에 감염된 간호사가 104명
하루 한 명 넘게 코로나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맞서 싸운 영웅들이라 칭찬하지만
세계 90개국에 있는 간호법이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간호사가 안전해야 국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이제는 간호법이 필요합니다



대한간호협회
Korean Nurses Association



경상남도간호사회
Gyeongsangnam-do Nurses Association

